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9호 2013년 5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투명한 뇌' 기술개발 스태ن포드대 연구원 정광훈 박사

MIT서 연구비 250만달러로 교수 초빙

MIT신임 교수 채용 사상 가장 많은 비용 들여 알츠하이머-파킨슨등 난치병 뇌 치료에 획기적

'헤어플 히서서 병역복래한 게 10년 지나 투명한 뇌 기술로... 뇌과학 연구 계속 먼저 창업, 한국 바이오산업 도울 것'

스탠퍼드대 연구원 정광훈(34) 박사가 최근 칸 다이스로스(Deisseroth) 교수와 함께 생쥐의 뇌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3차원 연결망을 하나 하나를 볼 수 있는 '투명한 뇌' 기술을 개발했다.

이 사실이 과학 최고 전문지인 'Nature'에 게재되면서 정광훈 박사의 '투명한 뇌'는 뉴욕 타임스(SNT), 영국의 BBC방송 등 전세계 언론이 '난치병 뇌 질환 연구 초점을 바꿀 획기적인 성과'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투명한 뇌' 기술로 세계적 인 과학자 반열에 올라선 그를 교수로 채용하기로 프린스턴대, 조지아공대 MIT 등 유명 대학들이 경쟁을 벌였다.

그는 MIT를 선택했다. MIT는 그를 데려가려고 신임 교수 채용 역사상 가장 많은 연구비인 250만 달러 이상을 조건 없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MIT가 제 경험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화학공학과와 뇌신경과학과



양쪽 소속의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MIT 대학원에 진학하러 했던 것도 MIT를 선택하는데 이유가 됐습니다." 그는 생쥐로 지도 교수인 다이스로스 교수도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 테이저로 뇌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생(生)유전학(Optomics)을 창시한 다이스로스 교수는 정 박사 덕분에 '투명한 뇌'라는 또 다른 급진적 발상을 추가한 것이다.

그는 또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공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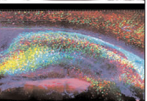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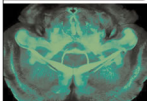
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이스로스 교수 연구실 출신으로서 다섯 번째로 MIT 교수가 됐다.

뇌가 불투명한 것은 지방 때문이다. 지방은 단백질과 DNA가 제자리에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정 박사는 지방을 빼고 빛과 같은 투명 하이드로겔(Hydrogel)을 넣어 신경세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뇌 안쪽이 훨씬 보이게 하도록 성공했다.

"방어 위해 시절 헤어플 히서서에서 일했는데 그때 배운 게 뇌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연을 위해 방한한 정 박사는 "헤어플 히서서 하이드로겔이나 나 헤어젤은 모두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에서 그물 형태의 고체로 변하는 특성을 배웠다"며 "병역복래를 마치고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 연구에 도움이 될지 몰

The brain is a world consisting of a number of unexplored continents and great stretches of unknown territory.

The brain is a world consisting of a number of unexplored continents and great stretches of unknown territory.



1생쥐의 뇌(왼쪽 위)에서 지방을 빼고 하이드로겔을 넣으면 빛이 내부로 통과해 투명해져 그 아래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오른쪽 위). 이 문장은 스페인의 지명인 과카자기 쓴 것이다. 투명해진 생쥐의 뇌에 염료 비추면 향광단백질을 만드는 뇌신경세포를 이용해 미세한 연결 구조를 볼 수 있다(왼쪽 아래). 투명한 뇌에는 빛 뿐 아니라 다른 물질도 쉽게 통과하므로 각각 다른 물질에 결합하는 신경세포를 들뜬 색깔로 나타낼 수도 있다(오른쪽 아래). 미 스탠퍼드대 제공

"먹고 살려면 미래를 가야 한다"고 부모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진로를 의뢰로 바꾸기도 했죠. 하지만 내 과학도 나왔으면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2면이 계속>

이달의 초대석
만수용 행사...14면

이달의 초대석
박중수 박사...1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QS 세계 대학 학문분야별 순위 모교 화학공학과 세계 17위 랭크

'한국 대기업 기술력 상승에 한국 대학 인지도도 높아져'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13 세계 대학 평가 학문분야별 순위'에서 모교 화학공학과가 세계 17위에 랭크돼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한국의 대학들이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이는 삼성·현대·LG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원천 결과이기도

해서 더욱 값진 것이다. 세계 대학의 화학공학 분야에서 1위는 MIT, 2위 UC버클리, 3위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였다. 모교 서울대는 전 세계 대학 중 17위, 카이스트는 2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학공학 평가에서 서울대는 35위였고, 카이스트는 51~100위권이었지만 이에 비해 괄리적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기계-항공공학 분야에서는 카이스트가 19위(지난해 51~100위), 서울대가 29위, 포스텍-성균관대-연세대가 각각 51~100위권으로 조사됐다. 도목공학 분야에서는 서울대가

QS 세계 대학 평가		화학공학 분야	
1위	MIT(MI)	1위	MIT(MI)
2위	UC버클리(미)	2위	UC버클리(미)
3위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	3위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
17위	서울대	17위	서울대
20위	카이스트	20위	카이스트

38위(지난해 48위), 컴퓨터 공학-정보시스템에서는 카이스트가 40위(지난해 51~100위)에 올랐으며,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카이스트가 29위(지난해 51~100위)로 약진했다. 한국 대학들의 이공계 순위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 QS측은 "후대-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아지지만 한국 대학들의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대학 교육도 국가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맞춰 발전해 온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모교 오연천 총장

조지 워싱턴대와 연구개발 협약 체결

한국 '운동 문화' 워싱턴대 연구개발 협회, 부원은 100만 불 기부... 조지 워싱턴대 연구개발 협회 기금 조성

모교 오연천 총장이 한국의 건설업체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 등과 함께 지난 4월 23일 조지 워싱턴대 스티븐 넵 총장과 만나 운동 문화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연천 총장은 또한 스티븐 넵 총장과 교수 박승규 등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은 지난 4월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GW) 대학에서 오연천 총장, 스티븐 넵 총장과 함께 각종 운동 문화 연구를 연구하고 우수성을 인리하기 위한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위해 부영은 서울대와 GW 대 간 학생과 교수 교류와 한국식 운동 기술에 대한 두 대학의 공동 지원활동 등 지원금으로 (GW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거쳐 GW대 체육이와 엔지니어링스 부위에 한국식 운동시스템을 갖춘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부영이 자금 조달과 설계, 건설을 마친 후 일정 기간 운영한다. GW에 투자 상당의 모든 수익은 부영이 기부한다. 부영이 자금 조달과 설계, 건설을 하고 준공 후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고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최상 경영을 한다. 이종근 회장은 협약에서 "운

↑ 모교 오연천 총장(오른쪽)이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왼쪽)은 물론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금 GW대 기증식에서 스티븐 넵 총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은 열효율이 뛰어나고 주거 위생환경 개선으로 건강에도 좋은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우리 조상이 수천년 간 사육해 온 고유의 문화 방식이 (GW대 기숙사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후 일반 가정에도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은 양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국식 운동시스템을 애용된 기숙사에 적용시키고 향후 이 동복구의 생활과 기후에 맞는 운동 방식으로 발전시켜 한국식 운동문화를 보급시킬 계획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던 사용하든, 고유의 문화와 스포츠와 사관과 브리테니카 및 백사관 등에 'ando', 한국의 비단 남방장 치마고 등재했다."

이영림 전 문화부 장관

새 승례문...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문』에서는 의(義)를 배우고 복록 홍지문(弘智門) 및 바림연(巴林連) 지(知)를 익힌다. 유(有)는 세 백홍지문(興仁之門) 세 바림이 있을 때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기쁨을 나누는 마음 어질 인(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남쪽 문 파파람 푸는 승례문(崇禮門) 세 문 있다. 오늘날은 참으로 오묘한 게 홍지문 뜻을 어리고 무를 풀이 역사 앞에 큰걸을 하라. 그동안 외롭다 그 무래한 적 없었는가.

지난 5월 4일 서울대 당청대 열린 승례문에 부처

무엇을 한다 정경과도 남에게 배웠었다 파르렀이 잘못은 가. 가들 태어난 승례문(崇禮門)에 노모를 썼고 다시 태어나 젊음의 지혜와 열정을 갖추도록 써라. 큰 태운 열리는 오늘 마포를 푸는 날, 땀방울 닦고 씻고 쉬고 일어나면 너희 옷차림은 갖지않고 내다주고. 떠나는 배와 돌돌이 내다주고. 열면 된다. 너희들 지금 남로고 가라. 여름 소나치리던 태양빛이 쏟아지는 남쪽 큰 대문이 빛났을 따고 활짝 열었다. 뒤로 600년, 앞으로 600년 보아라. 대한민국 동부 세로로, 승례문 너머로 어찌 열기 남달라라 파파람된 지평선의 문이 아니다.***

앞으로 600년 너희들 지금 남(南)으로 가라. 남쪽 큰 대문이 오는 열면 된다. 단란 상문 밖에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면 나무꾼이 아니다. 더는 추위를 떨칠 필요도 없는데 혼자라도 의로워라 할라. 채만사 셋속에서 주작(朱紫)이 날개를 펴듯 다시 솟아난 600년의 기억.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위해 세운 달빛의 문이 아니다. 앞으로 600년 자유와 행복의 열기가 태양처럼 밝고 너희들을 위한 미래가 있다. 나치가 무너지던 날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개산전으로 달려갔고 브리테니카 및 백사관 등에 젊은이들은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갔다 하더라. 너희들 아니다. 오늘 이어나라.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그보다 더 먼 글씨와 더 글씨가 활자라도 좋다. 그들이 문 때까지 이 문을 향해 서서 기다라. 너희들 지금 남로고 가라. 파파람 푸는 서쪽 돈의문(敦義門)에 당청대

승례문 개기 기념식이 승례문 5월 4일 오후 2시 서울 승례문 현장에서 열렸다. 좌에서 오른쪽에 쓰여진 것 5년 3개월 만이다. 세종프랑크문 일대엔 커다란 축제마당도 펼쳐졌다. 새 승례문은 매일(월요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기사 속 중계본은 승정원(繼寧院)까지의 전을...***

보생병원 일선기동병원-문화병원 등 주면 6개 병원이 돌아가며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진료에 응한다. 장 박사의 '침실자의료보험제도'는 한국 의료보험의 효도 모이다. 138년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뿌리



장기려 박사 기념관 부산에 건립

‘한국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기념관, 부산 초량동 500 복음병원 분원 자리에 지상 2층, 연면적 383㎡ 규모로 들어간다. ‘한국 슈바이처’로 불리고 (故) 장기려(1911- 1995) 박사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부산에 세워진다. 기념관 이름은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장기려 박사가 1968년

5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민영 ‘침실자 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한 부산 동구 초량동 500 복음병원 분원 자리에 지상 2층, 연면적 383㎡ 규모로 들어간다. 부산시와 동구의 예산, 기부금 등 7955만원으로 들어 4월 1일 준공식을 가졌다. ‘미 나눔’ 등 작은 도사관, 건강 나눔방 등도 들어갔다. 건강 나눔방에는

『내년에 계속』 그는 “다이스르스 교수에게 과학에 대한 열정, 정성과 리사담 게 40년에 달하는 연구원 하나하나의 성리를 잃으면서 운영하는 조지 워싱턴대”고 말했다. “다이스르스 교수의 연구는 지난 100여년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은 개인이 기부하고 한다. 정 교수는 “연구 성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되만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이스르스 교수는 수시로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난제를 이룰

게 해결할지 제안서와 강도 알려진 데 많은 사람이 감동받은 발음 정도도. 연구자에게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과학자들이 가장 부족할 필요가 있어요.” 정 교수는 NHK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벤처도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음이 분하는 지금보다 확률은 물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입니다. NHK에서 벤처를 시작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돕고 싶습니다.”***



<p>차 례</p> <p>3. <1>장의 목 록집<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100></p> <p>4. <2>장의 1대 수필<아미니의 사랑에서 시작된 종교></p> <p>5. <3>장의 자유주의 기독교 사상/공의 상사/나이드니 이런 사람이 더 좋더라</p>	<p>6. 대통령의 사람보는 눈/ 생명의 길/ 전직 (前職)도 죽었다!</p> <p>7. 나의 학생시절/말과 글의 경제학/김치 해 시인과 문예대</p> <p>8-12. 민주 운동문학</p> <p>13. <2>장의 <아미니>의 연의와 숨겨진 진실 이야기<3>/<승은 시강>사본발췌</p> <p>14. 이대들의 초대<4>7880은행 인수부형</p>	<p>(캘리포니아)</p> <p>15. 이대들의 초대<5> 박종수 박사</p> <p>16-17. 민주주의 동양의 소식</p> <p>18-19. 제1대 민주 동창회 임원진 차림비</p> <p>20. <2>장의 <미, 빈민사의 열화 이야기> Part.1 The Story of Murder /동문 시강> <세상></p> <p>21. <여행기> <미>에 어디에> <3></p>	<p>22. <과학철학> <2>에 에너지 동적자발과 IIR&삼></p> <p>23. <3>고교 동문동창</p> <p>24-25. 동문회 및, 각종 후원회 명록</p> <p>26-28. 동문 입소부</p> <p>29. 동명의 지부 회장단/ 편집취기</p> <p>30. <3>장의 <과학철학> 회의/ 광고</p> <p>31-32. 광고</p>
--	--	---	--

가정의 달 특집 <어머니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모경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연일되고 나서 지난 해 10월 출주후 방문해 모경을 만났다. 조선 일보는 이를 지휘해 취재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모경'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게재했다. 5월 8일 어머니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이를 전해본다. <편집자주>

▶생살이 먹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 노모가 재정이 잘 관리되고 달려간 것은 정성의 큰 축이었다.

배달일이 108배를 올리기며 그저 건강하게 먹고 또 믿음이 아이들이었다.

"생살을 쬐어 먹어도 아깝지 않다"던 노모의 마음은 지난 해 연말순례를 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1년 만에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노모는 벌써부터 애달미 그럽다.

"나는 친정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애들을 키웠는데, '말에 팔레트'라 하지 말라'라, '남이 웃을 때 미지 않거라', '말에 떨리면 물건이라도 할부로 주워먹지 말거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싶었다. 기록해놓고 우리 애들은 누구 하나 속 한 번 안 써주고 가련 해놓고 착하게 키웠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어머니 신현은 여사(90)가 총부 총주기를 한 날부터 노인정에서 언론 기자와 만났다.

"언론을 장미가 그려진 꽃집이고 언론 취재에 관한 리본 색깔을 차려입은 신 여사는 아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하도록 정경한 모습이었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기자 일행이 당황스러울 뻔도 했지만, "어떻게 그 멀리서 나를 보러 왔느냐"며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등을 쓸어내려주시기도 했다.

노년정 한 쪽에서 화부 삼재에게 빠져 있던 할머니들이 '아들이 유령처럼 사신도 책이고 출근이'는 농담을 진내사 신 여사는 "어기가 키에와 풀네가 있는 건데 얼마나 정신이 없지는 게 모른다"며 웃었다.

▶총부 총주권 원남엔 상당리- 얼마 전 있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3월 말 동행순례를 떠돌던 모경이었다. 반 총장은 지난

해 10월엔 총부 총주권 원남엔 상당리 1회 취재 모경을 방문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된 후 네 번째 방문이었다.

선친 곁에서 세월을 한 뒤 주부 반씨 조상의 사당에서 총부 총주권 반 총장 내외는 지난 해 말 북한인 생가를 돌리기도 했다.

수많은 환영 인파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사게 될까봐 위압을 받았는데, '눈을 떠볼까'는 뜻을 건넨 한 총장은 모경 총부 총주권을 찾아 두 배를 올린다고 했다. 8일간

의 한국 방문일정을 마친 반 총장은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말 반경엔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노모는 10주째 기자며 자사의 손을 이끌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마도 간수에서 사들과 한 두유박스를 한사포 노인정에 두고 가라며 배를 돌려진 모습이었다.

"어기 할머니를 잠소게 그냥 두라"는 말씀 속에는 그냥 두는 뜻만 배어 있었다.

공부 출납을 읽고 도어하의 수자를 누르라는 등 아흔의 노인에게 결코 간담하지 않는 말을 차곡차곡 그리고 나서야 언 잘 감수고 소박한 가정에서 도작 할 수 있었다.

맘을 뻐할 줄이고 있는 사견기

"아흔이 넘는 노모는 요즘도 매일 집 근처 절의 불상 앞에 앉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처성을 드리는데, 그 정성의 중심엔 언제나 아들 반기문이 있었다"

자 아느러웠던지 노모는 절에 들어서자마자 선통부 바람을 휘둘러 생겼다.

불과 3일 전 아들을 부둥켜 안고서도 회상했다. "그날이 꼭 꿈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날이 우리 자들을 고맙게 말했는데 나신 아들을 만나기 위해 노모의 머리부터 행자라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학교도 내한이 아들 들어서서 노모는 지팡이를 내린지고 손을 휘둘러 생겼다.

"1년 만에 말났는데 너무 좋았다. 그전 말났어. 나는 친정 할머니가 가르치신대로 세리 애들을 키웠는데, '말에 팔레트 하지 말거라', '남이 웃을 때 미지 않거라', '말에 떨리면 물건이라도 할부로 주워먹지 말거라' 하는 말을 듣고 싶었다. '나중에 처음 가던 그대로 되돌려 말라'니라"

그랬지. 기록해놓고 우리 애들은 누구 하나 속 한 번 안 써주고 가련 해놓고 착하게 키웠어."

3월 21일의 행사들 중에서도 유독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장남 반기문은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동대 어른들에게 90도로 머리 굽혀 인사하는 아이, 말 한 줄에 정신 한 줄을 잃던 아이, 다루는 동생들에게 찬찬

들린 신현은 여사는 반 총장의 어떤 시절을 둘러달라는 말이 마치 이제 말일 생생한 아예 말이었다.

"사실 기분이 위로 할까 모르겠으나 내가 있었어. 토실토실하니 잘 그런 애들이 꼭 두 살을 못 믿고 고만 가버리더라고. 세 번째 들어선 애가 기문인데 앞에 예뻐요 잘못해서 길다만 들

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반기가 있자마자 친정 할머니가 무당을 불러다가 잡귀 지웠을 정도니까... 나도 절에 다니면서 믿고 또 믿었어.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얼마나

조심을 했다고. 기문이 들을 만큼 초여미였어. 그 날 우리 숙보가 도르리목을 찬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도르리목을 내는데 아무래도 애가 나을 것 같더라고. 집에 가서 밤이

야였다는 생각에 대문간을 막 나서는 데 문지방을 넘기자마자 딸이 조여미라는 이름으로

간수히 문지방을 넘어가 있지 않나 하니까, 처마 크고도 날랐지. 그런데 애 목에 달았던 이 세 번이나 감지 있었어. 세

가파르게 질러 울지도 말더라고. 애가 점점 내려 왔잖아. 그 때 앉았을 때 들어서 가만, 가만 기문이 울음 주무르니까 그때서야 깨져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애가 소담하니 얼마 나 좋았는 거지 몰라."

▶어려웠던 시절- 풍운술사 소장을 잘못 시는 바람에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던 그 시절에도 정성의 중심엔 언제나 아들 반기문이 있었다고 한다.

▶친신과 끌어 올린 아들- 어머니는 율린 날아갈까, 어떤 띠를까, 애지중 애들을 길렀



신현은 여사는 지팡이를 내린지고 아들 반기문을 끌어안고 있다.

히 그 이유를 묻고 이야기를 들게 해주면 안 되, 그 아기가 바로 반기문이었다.

▶어려웠던 시절- 풍운술사 소장을 잘못 시는 바람에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던 그 시절에도 정성의 중심엔 언제나 아들 반기문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뽑혔던 딸이,

▶요즘도 매일 아침이면- 노모는 요즘도 매일같이 집 근처 절에 출근근로를 켜는 데, 불상 앞에 앉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처성을 드리는데, 그 정성의 중심엔 언제나 아들 반기문이 있었다.

▶어린 시절- 풍운술사 소장을 잘못 시는 바람에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던 그 시절에도 정성의 중심엔 언제나 아들 반기문이 있었다고 한다.

아흔이 넘는 노모는 요즘도 매일 집 근처 절의 불상 앞에 앉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처성을 드리는데, 그 정성의 중심엔 언제나 아들 반기문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지극하게 공부해

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신하라고

했다. "말 자라라, 자라라" 하는 말이 마음에 붙어버렸어. 아예 다 못하게 놓으니까 생각이 그 그 막 바깥에서 공부하는 데

참으로 믿어주고 그랬지. 외교관이 꿈이라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될 가는 길에

미국으로 가려 하자 어머니는 말

이야. 거기에 있는 외국인 딸

코자를 만났다고 친구 서서

(생서) 만났 좋았어. 그 친구 이름이 뭐냐."

아흔이 넘는 노모는 50년 전

아저씨 친구 이름까지 줄줄

대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시

각을 애정할 수 있는 대목이

손가락을 잃어도, 유육이 온

가죽이 났어. "뭐니 뭐니 해도 장미가 최고"는 다

는 다 할 수 없는 애정어 시였

다. 노모의 얼굴에 말로는

반기문 총장은 어머니 신현은

여사를 많이 들었다. 노인정에

서 한 눈에 반 총장의 어머니를

알아 뵈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였다.

"반 총장이 어머니를 많이

들었다"는 말에는 "노모

다. 저희 아버지를 많이 들었



반 총장은 어머니 신현을 여사를 많이 들었다. 노인정에 서 한 눈에 반 총장의 어머니를

알아 뵈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였다.

"반 총장이 서울대 입학시험을

알고서 있었어 그 때 너무 미대

를 받고 싶었는데, 그 때 너무 미대

알아 뵈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였다.

"반 총장이 서울대 입학시험을

알고서 있었어 그 때 너무 미대

를 받고 싶었는데, 그 때 너무 미대

<연계 계속>

고국 정치사회 칼럼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백범복(문리대 83졸) 통일연구소 분석위원 겸 순회취재원

‘알 길이 불출은 알이든 간길 사... 알 길은 모른다.’ 고 정할 할 수... 절보하는 열매에 보르도 있고...

‘눈이 안뜰’이라고, 결국 그 사람의 수완과 안목이 발동... 뿐이다. 별런(문리대) 눈에는 별런...

백내에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 이거다 눈과 맞지 않음에... 고대 중추를 때려 놓았다.

백내의 핵심같이 하늘을 찌를... 는가? 맞을 하겠는가. 서경(前)... 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려고 발동...

모든 면에서 100% 탄탄한 사람... 이었다. 해서 단점보다 장점을... 고 쓰는 것이 용인(用仁)의 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호... 인강(人事)도 그를 기용한 것도... 단점을 덮고 남을 장점을 보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호... 인강(人事)도 그를 기용한 것도... 단점을 덮고 남을 장점을 보았...

“전직(前職)도 직업이다!”

이용식(문리대) 통일연구소 분석위원 겸 순회취재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취임과... 려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前...)대통령’이었다.

‘전직(前職)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 하되, 취임 후의 활동 기량이...

대통령직의 역사가 가장 긴 미... 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정거장’이라...

미국 의회는 전직 대통령이 대...

업률에도 보여주지 못했다. 인성... 과 관련된에도 제정된 문화를 드...

‘심야 그릴 출근’이라고. 한번... 만 하고 일을 몰아치기이다. 이런...

대통령 취임 후 중 대변인이... 들은 인연과 손을 마시다 시 추...

동북과 소신, 이적성과 충성심... 도 물론 동진 기업을권 최의 A...

사람 보는 눈이 일제시대 필부... (夫高)형제라고 할 수 있다. 형...

그로서 나온 것이 ‘생명의... 의 길’이란 통일성이다. 각역의...

미국이라는 말 탈한 나위도 없다... 고 지도자의 사람 보는 눈이... 의 제국(世國)과 국가의 명맥과...

‘군주가 가장 두려운 무릇을... 는 것은 사립이 아니라’고... 는 것은 사립이 아니라’고...

대통령 직과는 다양한 인강(人...)도 필요하고, 용량과 책사도... 필요하다. 누가 맞지 않는 행...

치유시키거나 모난 성품을 가진... 사물은 안된다. 성질에 이따하...

한 자를 놓고 1500 이상은 냉을... 을 추구하기 어떤 지혜도 없...

그러다 해리 드루먼 대통령이... 수만큼 비용도 감당하지 못...

‘급료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라는 의미(義)이다. 이로서 전직...

미국 의회는 전직 대통령이 대...

미국 의회는 전직 대통령이 대...

미국 의회는 전직 대통령이 대...

고국 정치사회 칼럼

‘생명의 길’



현규일(문리대 61졸) 조선일보 전 주필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박정희 죽이기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이승만 가리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런 문본은 인간 세상, 지...

‘생명의 길’이 붉은 ‘백년전...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이다. (최정호)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 ‘생명의 길’ 또 새빨간 거짓...

229호 2013년 5월

수필

나의 학창 시절



김명덕(배대 58)

일찍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셸리Shelley는 “시간은 생각”이라는 시에서 “여름철의 자비보다도 빠르게 젊은 날의 기쁨보다도 빠르게/ 행복하던 저녁보다도 빠르게/ 그녀는 오솔길로 가고 말았다”고 읊조렸다.

나의 젊은 대학 생활, कै디의 시에 표현된 것처럼 저러기 나왔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필적로서의 정경도(情景)에서 벗어나 교양과 넓은 조도 폭넓은 대학생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4.19와 5.16의 역사가는 민족의 어이없는 시기에 걸친 학창시절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학창 생활은 인생의 고민과 시를 읽고 공부하는 데가 가운데서도 놀이기구와 낭만을 배울 기회도 있었다.

특히 말로 대학 생활에 있어서 3독1연(Studieren, Lieben, Trinken)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학생 생활의 필맛을 맛보지 못한다며 그러고 있다. 문예는 인생에 “날갯길과 환상도 없애 줄” 노릇이”는 것이다.

나의 대학 1-2학년 시절의 놀이는 “유루, 푸른애슬, 파파랑, 그리고 연애”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연애 이유 없이 피땀과 강이 없거나 공부까지 감하는 날이면 이화동 역거리 주마에서 빗방울 한 장 하면서 스트레스를 즐기기도 했다.

고전문학과 영화감상은 그동안 대학에서 준비도 허기진 문화에 어울릴 특구를 채우는 향적이 되었다. 부족한 중앙학생을 채우기 위해 학교 22에 있는 고전문학과 감상실 ‘물레차당’에 매일 동자를 몰았다.

먼저 침실을 거르고 어린 것으로 차 한 잔을 시켜놓는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들고 또 달콤한 베로 달코 모차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중 거장들의 교향악과 ‘카르네리’, ‘나비부인’ 같은 오페라의 갈림로대 선율을 듣는다.

또한, 그 당시 대학생활의 최대 오락이었던 영화감상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감독과 스토리, 명배우, 말투, 주제가 등을 중점을 의주지 못하면 축에도 끼지 못하였던 시절이었다.

고교 시절, 영화와라 붙자 학과가 공부하느라 못 보았던 영화를 한꺼번에 만화하느라 매일 밤낮 없이 책자의 만화판 극장을 들여다 보았다.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피그인, 윌리엄 홀렌, 클라라 케이틀 등 순정영화 연인들, 그리고 영원한 우상들은 아직도 내 마음 속 스르르 뒤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과외도 배우고, 교외도 보물 창고였다.

비대면동 주간은 1년간 복사하였다. 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시가 취재, 원고 작성은 물론 교수대 내장 및 학생생활의 모든 것과 자본주의 쫓아다니기.

학내 3학년 수. 3.15 대학총학생회장이 사임되고 4월 19 일경의 기사제목은 아직도 잊지 않는다.

도대체 나의 부피중에도 어떤 학생활동도 기억에 남는다. 고교 생활은 내 대학 학생 진리관과 학생생활을 위한 동아리활동 및 동아리활동으로 된 것과 그 동아리에서 만난 여대 학생과 주위에 남을 설 사할 줄을 배웠다. 잊지 못할 것 사할 줄을 기 위하여 몇 개월 전한국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셨다.

나의 학창 30년은 인생은 정경과 정경이 사라져 붙어있는 학창기에도 그 열정이 버티었다. 대학 3학년이던 해 봄, 3.15 대학총학생회 부장 사임이 도화선이 되었고, 스무 살의 젊은 학생들을 학중 생명 잃었다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젊은 고, 재밌지만, 또 그게 죄를 쓰면 대우 부정, 부패를 접하기도, 4.19형제를 만든다. 그것이, 정는 순정만이다. “는 확고한 신념을 젊은이들 가슴에 आरोज시키 했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학생백으로 덕 본 주

서울대 미주 동향회보

논설위원 논단

말과 글의 경제학



김상우(학대 66 경대원 68) 뉴욕동향회 회장

경제학의 제1장 제1과는 경제학의이다.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요즘은 말이 ‘경제학이 뭐야?’ 라는 말이 ‘코스트(원가)와 벤치마크(벤치)를 비교한다.’는 말로 대체되기도 한다. 가짜말 목적은 비록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는 소기의 목적(생산량)과 판매고, 유통망, 광고 효과 등을 달성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 경제학이 우리의 말과 글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즉 우리야말로 말과 글이 싸움이라는 소기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있는 때, 가능한 길이 많을 말과 글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이 말하는 말과 글이 우리들이 말하는 비에 비하면 우리들은 편이어서는 못지않게 된다. 그런데 말이 많은 미국인들의 조직은 원할하게 잘 돌아가고, 일이 무궁은 편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어떤 조직에서 아무런 말과도 일할 수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경제적인 말과 비경제적인 말의 차이에 서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인다.

원래 말은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존재이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말을 길게 하거나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면 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은 오래 하더라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본인 앞에서만 수행해듯이 하더라도 뒤에서 서서 반대를 할, 결과적으로 비경제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다. 말을 길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면 더 말일 좋은 일이지요나, 다 상대방이 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대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전연 연수원과 비영리 기관 단체, 우리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최적적인 일인 것이다. 관행이 있고 실행할 것이 있어야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겠다. 따라서 관행적인 것들에 비해 어떤 관행에도 의한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관심사 파악과 뜻과 고, 자의의 특징이나 전문분야 내에서 서는 전문적인 내용에서는 비경제적이지 않다. 우리가 가장 직장, 사업체, 그리고 관계하는 사회 조직 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경제적으로 점이 있어 나지 않는 관행적인 말과 글을 쓰는 노릇도 해야 할 것이다.***

김지하 시인과 문리대

허문명(가정대 86)

동아일보도 오피어인턴십장 수를 동향회보도 논설위원

김지하 시인은 만년 인터뷰형 동아일보도 오피어인턴십장을 수여 받은 인물이다. 70년대 민중과 사회적 인물이다. “서울대 문리대과 문리대에 편입되지 않았다”라던 내 인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교 문리대 미국과 50학이었다. 본래 학기가 되고 싶었다. 그는 “황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모친의 인유로 그로써 학문세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에 이를었다. 당시 시문학에 입문해 소속이었던 4.19가 타진 이유에 인 1951년 문리대로 편입된다.

김지하 시인의 문리대 편입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그는 자랑 아 아니었다. 왜냐하면 문리대에 편입된 것만으로도 대학생활을 온누리가 이루어져야 했다. 대학 중의 대담이 있었지만 한국 지주의 요망이었고 한국 지도를 양심적으로 뚜렷하고 70년대 대학생활도 산악이 되었다.

서울대 문리대는 쿠데타에 인연이었던 정경에 치명타를 입힌 '원'3 (1964년 6월 30)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정경에 이어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를 선전해 부림으로 운동하는 사건을 야기했다.

당시 학생 중에서는 훗날 '주체 담담'을 지니고 교문을 당하

능정면의 반응은 다음 해 5.16군사변의 도화선이 되었다. 5.16을 맞으면서 나는 다시는

서울대 역사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지금은 지난바 대대적이라도 공약으로 나왔다. 인민조직을 수습대가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만 부각하고 민주적 권리를 대학에 해체된 평가로서는 대개 인간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자신의 말과 글의 시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회상했다.

문리대는 광복 후 약 30년간 1, 1959년 2월 4일 후속 시였지만, 그때도 시험을 받았지만, 내가 들어가면서 인문-사회-자연과학대로 발전적 체제(?)를 했기 때문이다. 역사전 해는 때로 쓰러내려도 강추전 세 잊히는 것이 더 크고 많은 말이다. 서울대 문리대 역사도 너무 많은 부를 더 배워야 된다고 본다.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질적인 상황일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수단은 남아있도록도 모든 세대의 박투 속에서 역사적으로 달랐던 것이었다.

다. 나를 비롯할 것이 세대의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가지 가지의 일반적인 체제를 깨트리는 시대의 동 대학 생활중 중요한 것은 3-4학년이 되면 본래 코이다. 학교생활의 장장, 허사시문 준비와 인문학도 졸업, 학사시문 준비, 인문학도 졸업, 노드(Storm and Drang)의 시기를 넘겨 버리고 싶었다.

남은 시간마다 지나온 세월이 더 많은 것이다.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 보면, 그 때의 여건에서 살아남고 보전, 대학생활을 하려고도 자부한다. 지금과도 대 모든 생물의 기쁨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절이 두더라도, 4년 간의 충동 충동 학창시절을 나의 고고성과 평범함을 결정짓는 예(원)의 예 은 그 구약이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자비보다도 빠르게/ 젊은 날의 기쁨보다도 빠르게/ 행복하던 저녁보다도 빠르게/ 그녀는 오솔길로 가고 말았다”는 시가 되는데는 뜻이다.***

김지하 시인은 인터뷰형 동아일보도 오피어인턴십장을 수여 받은 인물이다. 70년대 민중과 사회적 인물이다. “서울대 문리대과 문리대에 편입되지 않았다”라던 내 인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운수 박사 ISPSA 자문위 의장 추대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으로 반석에 올랐던 박운수 박사는 지난 2010년 서울 프레스센터(CXO) 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물리학회 회의(ICPS-30) 명예의장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된 ICPS-30에서는 최광환 박도를 나이트라이트 반도체(ICSL) 등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다루었다.

격년으로 세계 각국에서 순회 개최되는 회의는 2010년에 30회째 한국에서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특히 2010년 대회에는 반도체와 코어물리학 분야의 노벨 수상자 5명을 초청한 '노벨 포럼(Nobel Forum)'도 마련됐다. 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1,800명의 과학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9년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 나이트라이트 반도체학회(ICNS-8)에서도 명예의장장으로 추방한 박운수 박사는 1964년 파리에서 열린 제7회, 1968년을 시작으로 1966년 교토, 1968년 모스크바 회의에 한인 물리학자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박운수 박사는 학미, 국제 과학 기술 교류위원회 이사, 1997년 국민훈장 장편장을 받았다.***

가 되고 있는 그레린, 나노 과학 기술, 나노바이오 분야도 집중되고 있다.

박운수 박사는 1962년부터 미국 방위연구소에서 회장을 맡으며, 한미 과학협력재단 운영위원장으로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 과학 기술 교류위원회 이사직도 맡았다. 미주 지역 100주년 워싱턴 기념사 및 회장, 한미 과학재단 전 국이사장, 한미 과학협력재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뉴욕주 연립 대학인 코네티컷주 인스티튜트(ITP)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홍순애 LA미대 동창회 회장 전시회

"다양한 재료의 추상적임 눈길" 5월 24일부터 4인전 5월 24일까지 열어

LA의 Gallery Y가 '폭발적 추상(Abstract Abruption)'이란 제목의 4인전을 4월26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는 다양한 재료로 추상작업을 하는 LA 작가들 서니 김(Sunny Kim) 홍순애 LA미대 동창회 회장을 비롯해 조나 버크비스트(Jonas Bergqvist), 에밀리 밴 혼(Emily Van Horn), 마르티 알렉시스(Marti Alexis)의 작품을 통해 작가들이 어떻게 재료의 감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서니 김(홍순애) 동문은 모교 미술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뉴욕 파슨스와 LA의 FIDM에서 공부하며 현대 미술 작가로 활동하며 동창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한 주주의 모습과 의미를

원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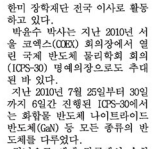
스웨덴 출신의 조나 버크비스트는 김경과 사인 사이에 공간감을 부여하여 혼돈과 정적의 여운 사이에서 자신을 놓는다.

에밀리 밴 혼은 주변의 여러 형태의 구성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판의 정점을 뛰어넘어 색, 선, 형태를 없애거나 타락으로 표현한다는 평이다.

전시회는 3800 W. 6th St., #304 LA, CA 90010(시티센터 3층)에서 열렸으며 www.galleryy.com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니 김은 홍순애 회장(원복)이 주관하고 Mr. 김성환, 김기원(원복)이 후원하는 '2013년 미주 동창회'가 함께 한 모습.***

이정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재외동포영사대사에 임명돼 귀국



실감없던 인사를 댔던것과 밝힌 바 있다.

이정관 총영사는 1968년으로 모교 외교학부를 졸업하고 외부고시 15위에 합격했다.

지난 1981년 외부고시 1등과 그동안 준비 1등시거를, 북미 2과장, 북미 1과장,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동북아시아대 위 원국전직, 재외동포 영사국장,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에 재직했다.

이 총영사는 재외동포 특혜 제외국인 업무에 정통하고 특히 외교부내에서 미국동포로 일러 온 인원으로 있다.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단행된 외교부의 이번 인사는 업무 연속성을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총 700명으로 이루어진 해외의 재외동포 연금업무 총괄과 관련 정책 및 결정 업무에 이르는 해외의 재외동포 업무 담당자로서 총 700명 중 5대1 극동 외교부의 미주 총영사 우선 임명(54·사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본부 재외동포 영사대사에 임명됐다.

지난 4월 12일 한국 외교부는 이정관 총영사 이외에도 이경수 자관보를 비롯한 6명의 외교부

저스틴 장 대한항공 위싱턴 지점장 부임



"2년 후엔 위싱턴에 대한항공이 취항할 지 20주년이 된다. 한 미간 정치·경제·문화 교류가 더 속 활발해지고 한인 동포들의 기

상 황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위싱턴 지점의 신임 지점장으로 부임한 저스틴 장 동문의 취임 인사말이다.

대한항공 위싱턴 지점에 저스틴 장 지점장이 새로 취임하고 조연 강 지점장은 뉴욕지점 부지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985년 미국으로 이민온 저스틴 장 신임 지점장은 1.5세 대도 미국 현지 재유류 지점장까지 승진한 드문 장이다.

LA대리인대를 졸업한 그는 1996년 샌프란시스코 지점에 입사한 뒤 2003년부터 서울 본사에서 여객 마케팅 부서와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했다. 한국 제류사 회사의 직원으로 모교 경영대학원을 마다다.***

연대화 동문 뉴욕에서 즐겁게 강의

뉴욕 아카데미 SAT경시대의 총혜 베이사이드 학원...문제 풀이 특강 실시

교도 경영대를 졸업한 뒤 서울을 강단에서 '죽게 강의'라는 별칭을 가졌던 연대화 동문이 뉴욕에서 SAT 경시대대에 대한 문제은행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입시전문 학원 뉴욕아카데미가 지난 4월 베이사이드 학원(42-19 벨뷰비어드)에서 2013 무료 SAT 경시대회를 개최한데 따른 것이다.

이 행사는 뉴욕한인회 교육부와 위원회가 주관을 맡았다.

이번 대회는 SAT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다. 참가 학생들은 연필과 지우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경시대회에서 각각 9-11학년별로 나누어 1등은 그레이스 리명 학생(원복), 2등은 예이 리 등스 뉴욕주 상원의원장, 3등은 장 진규주 하원의원장을 받았다.

시합을 치른 뒤 곧바로 경시대 문제풀이 특강이 펼쳐졌다.

특강은 서울 강연에서 SAT '연대화 강의'로 명성을 날렸던 연대화 동문과 방미원씨가 맡았다.

모교 서울대 경영대학 출신의 연대화 동문은 해리스 SAT와 똑같은인아카데미에서 작문과 수학 강의를 맡았다.

영 동문은 "단순한 출제계가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맞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은 제공한 것"이라며 "강의를 들으면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복 총은 "영역별로 정화한 분석을 통해 고득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뒤에는 학과대회를 위한 대입 세미나도 마련됐다.***



민수봉 행장BBCN 신입 행장에 선임

한인은행행장 18년 역임 후...이민연 BBCN으로 옮겨

미국 이민 연도 최대 은행인 BBCN의 새 행장으로 민수봉 전 원서은행장(76·서진)이 선임됐다.

지난 1월 18일 총회 행장 겸 전 행장의 사임 발표 이후 민선 취임을 시작할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인사다. BBCN의 지주회사인 BBCN 행장은 지난 4월 이사회회 의장직으로

민영조 박사 암의 예방과 치료 강연



남기주 스탠튼 한미 가정상담소 세미나

스탠튼에 있는 한미 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장 최, 12362 Beach Blvd. #1)가 지난 4월 4번째 의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사선 암전문병역(사진) 박사가 참가해 암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과정을 설명했다. 프로그램 디렉터 지니 최씨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

들이나 현재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암이 한국으로 전이됨을 우려하며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연한 민영조 박사는 35년 이상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일해 이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안암회 거주 인턴도지역 최장교 남기주 제1한인의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미 가정상담소는 지난 1월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일 밤 8시경 30분간 열린 정보의 홍수 대처 건강강좌와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월 권이선 박사에서 이어서 이강한 박사(심장내과 전문의), 이강민 박사(임상내과·건강교육·생활) 등이 강연했다. ▲양성태(원장) ▲안상환(소아과) ▲박우진(정형외과) ▲최성진(정신과) ▲최병호(임상병리) 박사 등이 계속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최종고 명예교수 출원 이광수 초상화

지난 3월 25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출원 이광수 세미나'에 초청돼 주제발표를 한 바 있는 최종고 명예교수의 최종고 명예교수가 출원 이광수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 그 이미지를 e메일로 미국 동향회에 보내왔다. 최종고 명예교수는 '출원'의 생애와 '이광수'를 주제로 강연했다. <동향회보 4월호 참조>***

김구자·정동현 동문 작품 초대전

'퀵빌런스'를 주제로 민재이 갤러리의 초대전을 진시

캘리포니아의 부에나비야에 있는 민재이 갤러리(5731 Beach Blvd.)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견 미술작가들의 작품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초대전은 '퀵빌런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모교 미대를 졸업하고 활발히 작품활동을 전개해 온 김구자 동문과 정동현

동문이 참가했다. 안동리 대학의 미술학과 교수인 월남작가 앤 퐁, 알라르메이나라서 온 그랜드 아바카인도 함께 작품세계를 공유했다. 이번 초대전은 중견 작가들이 추상화라는 미술기법을 통해 말하려는 중년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대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희 동문 시집 뉴욕서 출판기념회

시인 박상희 동문의 일곱번째 시집 '고풍이 너를 안다'는 시는 제목의 시집이 LA에 이어

뉴욕에서도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박상희 동문은 시 '눈색이

곽태조 동문 위싱턴 한인 음악인협서 공연

위싱턴 한인 음악인협회(회장 이성희)가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위싱턴 풀꽃 앙상블의 멤버는 곽태조 동문을 비롯해 오현아, 이윤영, 조은빈 씨 등이다.

지난 5월 4일 웨인퍼스 소제 프롬비던 장로교회에서 막을 올린 음악회는 '푸티 플러티(Futti Flutti)'를 주제로 뜻밖에도 앙상블 내 멤버로 구성된 '위싱턴 풀꽃 앙상블'의 무대로 마련됐다. 지난 해 음악가협회 주최의 음악회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처음 갖는 독자적인 음악회였다.

곽태조(전 음악인협회 회장) 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리 군악대에서 20년을 연주한 실력자이며, 오현아 교수(폴고메리 칼리지)는 케네디 센터, 스타스키와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연주했다. 이윤영(전 숙명여대 강사)씨는 CMO 풀꽃 지도교사로 활동 중이



며, 조은빈(위싱턴 유스 오케스트라 무지휘자)씨는 피아노 음대와 조지 메슨대학 거쳐 가톨릭 음대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피아노 반주는 고경남 교수(캘리포니아 유니 칼리지)와 김희정(영성교회 교무부주)씨가 맡았다. 레퍼토리는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시곡, 차르니코프의 '가문의 불꽃' 제1노를 위한 사중주 '협주곡', 리베르타의 '불꽃'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3번1, 비발디 사계 중 '봄', 피레트 막스 뒤부아의 '불꽃을 위한 사중주', 비제의 '카르멘', 립스키 코프사코프의 '라망' '비발디' '한국민요' '아름답게' '대항해' 등이다. 이성의 회장은 "20대를 갓 넘긴 새내기 연주자부터 노련한 원로 연주자까지 세대와 세대를 잇는 4명의 연주인들로 구성된 있는 위싱턴 풀꽃 앙상블은 위싱턴 화과 예술을 자랑한다"며 "서로를 높이는 길은 함께 하는 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음악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싱턴 한인 음악인협회 정기연주회 관계자들이 연주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LA 한인센터 이명훈 신임 이사장 "노인에게 무료 치과 진료봉사할 터"

늘이질스런 전락 언저리 엮어-직업교육 도우며 주력

"임정은 했는데, 수성 어려운 것이다. LA의 한인타운 노년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제 3대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명훈(사진) 이사장이 앞으로 노인센터에서 커뮤니티를 대표할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인센터가 거주 정부로부터 전입금 190만 달러를 모두 받아내 '입성'에 성공했다면, 이제 센터를 통합하게 잘 이끄는 '수성'이라는 더욱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며 격려했다.

가정 생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진원금에 얽호는 사람 아니다. 노인센터는 작년 10대 동안 11대에 19대 달리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보여줬다. 이를 위해 노인센터는 첫 번째 봉사 프로그램인 무료 치과 진료회를 할 계획이다. 휘티에서 34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한 이명훈 차기 이사장을 "2년 전부터 메디칼에 집착하고 백백이 됐다. 이제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를 봐줬다"며 "한 번 치과하면 최소 100달러 이상 지불하는데, 노인센터는 꼭 지원할 터"며 약속했다. 이명훈은 노인센터 이사장이 되면 "노인에게 무료 치과 진료봉사할 터"라며 "한 번 치과하면 최소 100달러 이상 지불하는데, 노인센터는 꼭 지원할 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센터가 한인인을 위한 곳이 아닌, 모든 인종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을 꼭 알렸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LA 한인타운 노년 및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이 이명훈(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사장을 제3대 노인센터 이사장으로 선출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이라고 협조가 없었다. 노인센터가 진료 허가증을 신청해보부터는 데는 약 3개월, 또 필요한 진료 시설 셋비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는 데 약 3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겠다는 것의 설명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빨라야 11월이나 12월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교포에서 차대 졸업 후 USC 차대 대학원을 이어 박사 학위를 받은 이명훈 이사장은 "차원올해부터 내 입문양을 전원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온화할 것"이라고 봉사 프로그램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고려원양 이기태 동문 회고록 출간



'바다, 끝없는 유혹' 출간

고려원양 주재원으로 활동했던 이기태(70) 동문이 '바다, 그 끝없는 유혹(Sealess Lure on the Sea)'을 출간했다. '세1세대 배의 주재원 리포트'라는 부제가 실려있는 이 책은 이기태 동문이 취재하고 고려원양 이엽주원시에 인사해 해외 주재원으로 세게를 누빈 저자가 바다(가나스페)에 대한 기억과 당시 시대상이 엮여온 이야기다. 이 책은 이기태 동문이 취재하고 고려원양 이엽주원시에 인사해 해외 주재원으로 세게를 누빈 저자가 바다(가나스페)에 대한 기억과 당시 시대상이 엮여온 이야기다. 이 책은 이기태 동문이 취재하고 고려원양 이엽주원시에 인사해 해외 주재원으로 세게를 누빈 저자가 바다(가나스페)에 대한 기억과 당시 시대상이 엮여온 이야기다. 이 책은 이기태 동문이 취재하고 고려원양 이엽주원시에 인사해 해외 주재원으로 세게를 누빈 저자가 바다(가나스페)에 대한 기억과 당시 시대상이 엮여온 이야기다.

출판이다. 본사에서 근무할 때는 한국과 프랑스 이엽원정 회의에 일개 대표로서 참석하곤 하는 가하면, 선박 구매단의 일원으로 남미(이라)가 중추적 역할을 가하며,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속해 있는 선박을 회사에 만조할 수 있다. 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한 달 전까지도 외국에서 3명의 선장이 교포로서도 사정없이 본사의 대표로 수습 및 편제 출장을 가서 이상치 잘 마무리 하는 선출을 회사에 만조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자가 입사 이후 11년 간 고려원양에 근무하면서 이루 해 오고도 지고한 해외 주재원 생활의 이모저모가 생생하게 담겼다. 또 사내 불교교육과 관련된 대학원을 졸업한 저자는 1980년대 LA 한인타운에 있었던 율리안 호텔에서 전무이사, 키스다 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1993년 한국으로 돌아와 동·변역 및 비즈니스 컨설턴트 제인 '스타 인터내셔널' 과 출판 편집 '베네텍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기태 동문은 남가주에서 자신의 출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창환 동문 LA에서 개인전

별대 출신으로 미국에 온 후 미술 작품... 자연을 향한 집념의 전개 자연의 경이를 슬물처럼 열렬하게 그려내고픈 욕망의 열매를 강창환 동문은 '자연'을 주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LA의 사우스 페스티벌의 스페이스 갤러리(Spas Gallery)에서 열렸던 이번 전시회에서 강창환 동문은 선보인 작품은 모두 30여 점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와서는 다들 시그널 그리기 시작했으니 제가 2011년과 지난해 개인전은 같지 않다. '생명이 그(저)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 보이는 생명들을 보듬어 담아내고 먹이주고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그려냈다. 더불어 그는 "이 자연은 청정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 주면서 우리를 품어주지만 때로는 기대할 억누름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사 안에 나의 그림은 작은 내 거꾸러진"라고 내러티브의 심사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다.

강창환 동문은 교포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일 함부르크 대학으로 유학해서 다시 법학을 전공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다는 뜻을 두고 있으며 이 느낌을 관객들이 함께 느껴주기를 기대했다.***

변경희 동문 뉴욕문화원서 전시회

인문대학을 졸업한 변경희 동문은(고미술사학과 91)이 뉴욕문화원에서 5월 17일까지 '색채 선'이란: 제이 한인화가 아카르의 전시회, 1부 1965-1989'를 타이틀로 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로 들어가면 볼 수도 있다. 영어로는 Coloring Time: An Exhibition from the Archive of Korean-American Artists, Part One, 1965-1989이다. 변경희 동문은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다니



서양화가 이정주 동문 작품 프랑스 '하넌 뮤지엄'에 영구 전시

워싱턴 DC에서 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서양화가 이정주 동문은 지난 2012년 말 프랑스 북부 도시 낭주에 있는 하넌 뮤지엄이 설치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한 달간 낭주에 머물며 미술 작업에 몰두해온 이정주 동문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10여 명의 외국작가를 선정해 한

지난 3월 26일 작품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정주 동문의 작품 10여 점이 새로 전시되었다. 그런데 이번 전시작품 중 '제주인 황구(Part of Jeruzal)'가 뮤지엄 영구기증 작품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작품은 2008년 2월 10여 명의 외국작가를 선정해 한

가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경희 동문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를 거쳐 미국에서 일하고 작가로서 사색에 몰두해 오셨던 작가 김기철 작가의 미대 교수를 하다가 온 경우도 있고 일출승, 문비애, 한중진, 김경원, 김기흥, 박인숙 등 미술계 선배들과 미술계 교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45년 경도 잘 기억하게끔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술사계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과학, 산업, 경제, 금융 등 자본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많지만 문화계와 관련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케이S 북의 Korean Cultural Service of New York에 가입되어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뉴욕의 미술계에서도 변경희 동문의 기획전을 관람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달적 머머머 미술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캠프 프로그램이다. 워싱턴 한미 미술가 협회 전 회장인 이정주 동문은 프랑스 미술과 동대학원 회화과, 모교인 고려대학교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그 뒤 여주 동문은 미주지메이슨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버지니아의 로어 메슬러빌과 워싱턴의 아크 갤러리 대표 및 크리스티아 미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LA평통 최재현(수의대 66) 회장

‘민주평통 LA30년사’ 출판기념회

최재현(수의대 66) 동문이 회장으로서 제1회 LA 민주평통 동문지원위원회(일명 LA평통)가 ‘민주평통 LA 30년사’를 출간하며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6일 오후 LA의 ‘시크릿 가든’에서 열린 이 기념식은 동문들을 포함해 250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이뤘다.

이와 관련한 회장은 이 서적이 나오기까지 많은 인사들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발간 동기에 대해 “지난 해 시적으로 나만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발행해 읽은 후 인권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라는 신념으로 제작해 나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7기 회장을 역임한 이창봉(상대 61) 동문은 역대 회장들을 소개하면서 격려사를 통해 이 책이 많은 동포들에게도 이 책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 이세진(문리대 55) 명예교



LA동문들이 ‘민주평통 LA 30년사’ 출판기념회에서 최재현 회장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봉 회장, 최재현 회장, 미주 출판회 심주경 사무국장, 박옥자 총무국장, 김창진 동문(평통 자문위원), 한태호 남가주 동문의 총무국장

수인인 자부심을 얻고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 평통은 창설300년을 앞둔 LA 무로 배후국 계획이지만 발간해 청소년을 위한 자발적인 후원금 기부도 받는다.

역대 자문위원 1천여 명과 한국 지자체, 세계 각국 평통지회에는 무료 배후국 예정이다.

최재현 회장은 “30년사를 배부 받은 단체나 개인이 20달러

이상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남북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평통은 특히 지난 5월 LA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책이 발간된 30년사 2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LA 평통 3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꼭 예 시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서적의 발간에는 ▶Seabae 강(대표 이명준) ▶Lee & R(대표 노호영) ▶이창봉 6-7기 회장 ▶김창진 자문위원 ▶한태호 평통위원 ▶강희자 자문위원 ▶고성준 자문위원 동문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평통은 이같은 공헌으로 이날 김창진 동문과 미주 동문회 재무국장인 강희자의 자문위원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정연 동문 LA에서 전시회

신정연(미대 61) 동문이 5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LA의 Lee & Lee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다채로운 신 동문의 이 전시회에 대한 호감이다.

“가장 감춰져 변화되고 있는 지난 몇십년 동안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고 있다. 세월 만큼이나 아프고, 변종하는 생활이었지만 항상 변명에는 그걸의 근본을 놓치지 않고 이어왔다. 역

상을 이어갈 때 나만의 행복을 피복에 옮겨 놓았다. 때론 잊어 버려 내일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론 사랑은 내 것 같아질 때도 있다. 이것이 예술가 무드의 감옥으로 반복되는 생활과 환상 속에서 작곡이 완성되곤 한다.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사람이 되고, 그 내면의 특성을 찾아갈 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죽어 속에서 한 순간을, 혹은 바쁜 도시의 내면을 찾아 표현하기도 했다. 화담은 더 단순하게 처리됐으며 텍스트 밖으로 연결되는 느낌은 더욱 커졌다. 기하학적인 선과 면을 보이기도 하고 부드러운 흐름의 유연성을 넣기도 하며 다양한 기법으로 거듭되는 색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내 작품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또 다른 인생을 만날수 있기를 바란다.”

사건은 신정연(왼쪽에서 5번째) 동문을 중심으로 홍성애(62), 김순진(59), 이선화(68), 김다애(73), 신동민(60), 최영원(72), 신혜자(61) 동문 등의 모습이다.***

박혜란 동문 기초음악 교실

참고 재미있는 음악수업 개강해 5월 22일까지 진행. 필라델피아 만국음악보 문화센터에서

‘박혜란의 기초 음악교실’이 한국음악보 문화센터에서 지난 4월 개강해 5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4월 25일 한국음악보 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초 음악교실에서는 율조, 조표, 음정, 코드 등 기초 음악이론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2시간 수업 중 30분은 가스펠, 찬양과 함께 해 교미되는 음악수업으로 진행됐다.

박혜란 동문은 “필라델피아에서 성장하면서 찬양가로서 악보를 제대로 읽을 줄 몰라 어려움을 하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과 새파랑, 뱀노래 등 민요도 연주했는데 특히 박혜란 회장이 직접 지휘를 맡았다.”

음악교실은 지난 4월 25일 개강해 5월 22일, 5월 18일, 5월 23일 총 4시간 25분, 5시간 25분 총 9시간 50분으로 진행됐다.***

대 성악과 및 템플 송데 대학원 합창 부문을 졸업하고 최고 명문 합창단 필라델피아 만국음악보 문화센터에서 조지휘자를 역임한 전문 음악인이다.

현재 영성 장로교회 지휘사이며 필라델피아 합창단과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필라델피아 한인 음악인협회 회장으로도 재임했다. 이 협회 회장 재임중이던 지난 해 10월 27일 영성교의 제2분교에서 음악인협회 정기 음악회를 ‘한국 가곡의 밤’을 주제로 열었다. 이 음악회에서 그리몽 금강산, 가교로, 향의 노래, 향수, 추억, 내 마음의 강을 등 한국 대표 가곡과 새파랑, 뱀노래 등 민요도 연주했는데 특히 박혜란 회장이 직접 지휘를 맡았다.

건강 의학 칼럼<7>

다이어트의 역사와 숨겨진 진실 이야기<하>



조형기(의대 86) Anaplast리니 원장

▶**황제다이어트**(영국여사 사할의 다이어트) 위해서 인공적으로 굶었을 때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갔던 그때 아내 단백질만 먹고 살았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판한 다이어트이다.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거나 아주 좋은 다이어트일지는 아직만 못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단백질이 많이 있어 있어서 오래 먹기 힘들다는 것이다. 원래 살아가는 것이와 생선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사다가 푸른 콩채일까 싶지만, 이때 맛을 내주는 것, 분을 만드는 과정 중(인체의 과정은) 조금 타버린 지방에서 나온 게 고지방이어서 순수 단백질 자체는 별 맛 없었다는 것을 괴짜 한 것이다.

그래서 순수 단백질만 나오는 콩이 통콩 속에서 마늘 먹고 100 인 후 몸무게 10kg를 떨어트린 다이어트이다. 단백질과 푸른콩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법이냐는 질문이 그러는 물러서 살이 찌는 달걀 빵을 먹은 것 같다는 소리를 한다.

이쯤 되면 단군설화에 나오는 곰이 통콩 속에서 마늘 먹고 100 인 후 몸무게 10kg를 떨어트린 다이어트이다. 단백질과 푸른콩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법이냐는 질문이 그러는 물러서 살이 찌는 달걀 빵을 먹은 것 같다는 소리를 한다.

▶**물음표** : 이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단단 정신이 요구된다. 지방은 아주 예민하게 많은 물질이라 1g의 지방은 태워 9 Kcal 정도의 열량을 생성해 준다. 지방이 25g일 때는 살이 2배 강 된다(지방 50 g 정도는 살이 30g 정도 열성의 달리기 때

강 10g 정도의 지방을 태우면 900이다. 이렇게 1kg를 떨어트린 100일 동안 열심히 달리는 것이다. 그런 데 만약 아침에 운동했다. 1시간 오이트를 할 뿐 아니라 비누 한 잔을 마시면 그날 운동해서 뱃살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면 음식도 함께 잘게 잘라야 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지 않으면 성공해도 그걸 유지하는 것은 힘든 것 만큼이나 힘들다는 것도 덧붙여 주자. ▶**금지되는 약을 이용** : 지금은 시판금지되었지만 한동안 천연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 오야초라(마아마)가 허가되어 팔렸었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었다. 천연이라 부작용도 없고 호르몬들이 수백만 동안 사용해도 안전성이 입증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는데, 결론은 말하면 마약과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품이었다.

▶**칼로리 환원** : 해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수술을 할 때, 자연적으로는 피해서 살이 찌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많은 위험을 같이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마약이라는 것은 2군데 나뉘는데 작용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마약가의 열성증과 같은 것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 이

“지방은 반드시 잘색지방세포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쉽게 살이 찌지 않는 것이다”

만 약을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쪽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저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마약과 별칭에서 찾아서 마약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수감금지처치를 내렸다. 당시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팔던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사서 내놓을 줄 모르고 믿는 다는 이유에 부합한 진원약이다. 이런 식으로 파밍과 같은 다른 약품들을 일으켰다.

이런 비슷한 것들로 감당선 호르몬을 남용 방법도 있고 다른 약품을 남용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는 뛰어난 기교와 재능이 있어야 하는 부작용을 포함해서 대개는 실패로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런 다른 예를 들자면 대마초나 남태도 피면 살이 빠진다. 몸 에 독을 넣을 과정이기 때문에 극단적 예로 2차 대전 중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를 대량 생화학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마약류를 섭취하면 페그로프의 고통을 잊고 살도 안가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피로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극단적인 육체만큼 피로도 오지 않게 복용하면 정신차란을 일으키기 원상과 환상을 구별 못하고 잔인한 범죄를 일으켜 지금까지도 기억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물을 다이어트 보조제는 것은 내용의 정중을 팔아 팔기로 몸무게를 좀 줄이겠다는 이의식성이 없다면, ▶**플러** : 대 비싼 관리치료법 : 병원에서 수술하러나 기구를 사하는 방법들이다.

우선 지방흡입이다. 배시 힘이나 허벅지, 팔뚝, 엉덩이, 이다. 효과는 뛰어난지만 부작용도 아프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 방법은 아니다.

비슷한 것으로 지방분해주사 있다. 원래는 지방이 아니라 지방이 들어간 것이므로 운동하는 것으로 지방분해는 영장류와 피라 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알려지면서 유도가 바뀐 케이스이다. 최근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살이 찜 빠진 몸무게를 되찾기 위해서 수양약을 먹고 나왔고 최근 유명세로 되돌아왔다. 간단히 말해 배에 주사기를 약물을 주입해 2주에 걸쳐 서서히 지방을 녹여나가는 치료이다. 한편 치료에 0.5-1kg 정도 빠진다고 알려지었다. 이 약이 효과가 없을 때도 있는데 3-4kg 정도 주사를 많이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북부비만 제거용 초음파 치료도 사용되는데 한 번에 허리 둘레가 0.25-1인치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영양소** : 지방도 지방세포-간단히 말해 에너지 저장고 역할이 살 수없이 없는 환경으로 이차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이란 예로 콜로라도 보살피 시 같은 오메가 3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아메리칸 먹고 살면서 매일 워터 드레징을 하면 살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 동등한 공기가 피해서 조금만 튀어도 운동용이 튀어 나오는데 동등한 천연 지방인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내발 같은 대로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건강하고 서서히 살이 서서 일상생활 자체가 하루일 등 생각되는 것은 마라톤이다. 그렇게 먹는 것도 1000 자원이며 고기 가격이 별로 없어 살릴 여유가 거의 없다. 전화도 이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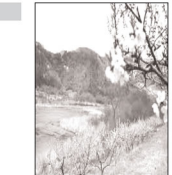
동문 시 감상



김유리(가정교육 53) 시인

봄빛 속에

봄은
거린 바람 속으로 오해
놓는 꽃봉우리 시향하는
꽃샘 바람



봄 속에 묻혀 한 겨울 난
마는중 새파랗게 솟구치듯
마른 나무 줄기에 다우어
새살을 보네

유망해 멎든 가슴에도
다시 난다는 생명의 꽃은
날개째 뜨거기다
이 봄빛 속에

도 많이 때문에 약간 심심할지는 몰라도 삼삼 쪽쪽오면 좋겠다 이 예견같은 상상도 못하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세속조질 소프트웨어** : 유익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들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것보다도 평생 친해 버린다는 게 바로 모고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하루 밥 반공기도 버티면서 1시간씩 운동해도 여

다른 것들과 달리 반드시 살게 지방세포라는 곳에만 저장이 가능한데, 이것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이분은 저장고에 기름이 많은 사람은 쌓이도록 쌓이게 되니 살이 찌고, 창고가 적은 사람은 아무런 찌고 싶어도 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저장이 많은 것보다도 쌓이지 못하고 그냥 항상 배출되어 버리

이것은 예전에는 완전히 유익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해본 결과 많은 유익이지만 테이내나 4급이 될 때까지는 속도가 높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어떤애를 미만을 판단할 때

인간 지방세포는 주사의 경우 강

는 운동은 카페 하루종일 굶것집도 모르고 잠자기 전이 소스피를 할 정도로 자는 것도 안하니 근 살이 날려낸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성은 절대 무용하지 않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원은 바로 스포츠맨이다. 그는 팔찌였으면 일본의 스포츠선수가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팔찌였으면 일본의 스포츠선수가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이어트의 핵심** : 간단히 말해서 다이어트 중이든 특별한 운동용 통해 근육을 유지하면서 식욕억제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더 좋은 원래 본인의 몸무게를 잘 판단해서 원래 몸무게의 10% 정도, 20% 이하로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무리하게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무리하게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무리하게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애를 미만을 판단할 때

인간 지방세포는 주사의 경우 강

▶**다이어트의 핵심** : 간단히 말해서 다이어트 중이든 특별한 운동용 통해 근육을 유지하면서 식욕억제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더 좋은 원래 본인의 몸무게를 잘 판단해서 원래 몸무게의 10% 정도, 20% 이하로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무리하게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무리하게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무리하게 살이 찌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이달의 초대사(17) BGCN은행 인수(상대 55) 협정

‘청출어람’ 이 무색한 독심의 50년 외곡 금융인

‘월서은행’ 때 Fortune 선정 금성장 100기업중 70위 2007년 1월에는 US벤티지 톱10의 CEO로 표지모델

“독심”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풀이는 ‘굴세게 버티는 힘’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현대에 통가는 억압되는 약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초지일관(初志一貫), ‘누가 뒤러도 오지 않길’로 마침내 정상에 오른 서너는 힘이 아닐까. 그 후로 우리 한민족 고유의 가치나 능력 향으로 여겨지기도 있다. 영미권에서는 ‘My Way’가 어울린다고 한다.

지난 5월 미주 한인 최대 은행인 BGCN은행의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된 민수봉(상대 55) 회장은 아랍어로 ‘독심’이 한 단어에 다 담일 듯 하다. 보통의 경영인들보다 훨씬 심혈한(心血汗)을 더 쏟는 76세(4월 24일)의 그는 2007년 1월 15일(7월 15일)에 ‘청출어람’이 벽이 된(靑出於藍而勝於藍) 이라다가 이 경기가 우리 부채제 되고 말았다. 민수봉이 BGCN은행의 신임 수장을 행장을 떠나면서 다시 발탁된 통가를 어깨膊으로 “독심보다는 머리 모로 부족 한적에 감사 기회를 준 대대해 그저 감사하고 회사를 다 해 보달라 생각입니다.”

“BGCN 인수까지 돌방에 오른 이후 2년 행장을 신택한 배정에는 그의 특이한 매그 인 강행한 리더십과 9회 회장을 통해 통발과 열의력을 강요,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50년 공업인의 경험으로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자는 큰돈의 연인과 건강을 돌보는 쪽도 있지만, “나를, “나를 내는 것은 호적상 나이와 신체의 젊음이다. 그리고 정신적 나이의 새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적상의 나이라는 것은 요즘은 시발말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우선 신체가 나이와 정신적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30” 즉 “죽”이 이른바 “죽”과 “마음”이 본론하다면 호적상의 나이만 지어준 하아리엔 의미가 없지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전에 “30”을 되뇌어 합니다. 거기엔 한가지 더

“말”까지 건넨다면 “30”은 지금까지 건설해-정신적인 건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 때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임기를 끝이 2년만 하시겠다고 한 이유로 퇴직입니다.”

“3년은 재원이 없다고 결정합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젊은 사원이 많은 데 3년만이다. 나도 잘 할까봐 있어야 하죠. 허허허. 그러나 2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할 생각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BGCN이외에서는 민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회장은 앞으로 2년만은 고대해 스스로 파룬(辭職)을 하고는 다짐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민회장은 월과 중앙은행의 차용금으로 탄생했습니다. 처음 ‘Best Bank, Central-Nara Bank’의 뜻을 담은데 나라는 부임하면서 우리

최 상업은행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1994년 LA의 한미은행장으로 미주 은행권에 본격 진출한 뒤 6년만인 1999년 7월 월서은행장으로 옮겨 지난 2007년 말까지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한미은행으로 가서 첫 통가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상업은행을 계열사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신 설립자가 됐는데 1994년 4월 LA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모인 회계 했습니다. 핵의 부자가 많이 팔렸지만 이미 많은 부자가 이뤄졌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은행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BGCN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월서은행은 창래도 현재 우리 나라 2000억은 8000억이다. 그러나 시장은 훨씬 확대된 것인데 너무 저평가돼 3년내에 2000억에 4500억 정도를 줄 수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1~2 개는 손에 안들어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큰 은행들이 다 남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측합니다.”

“호적상의 나이, 신체적 나이, 정신적 나이 중에서 신체적·정신적 나이가 가장 중요해요. 몸과 머리와 마음이 튼튼하면 호적상의 나이란 무의미해집니다”

말 이다. “말고” 빠르게 역설하는 “나이가가” 라는 회색 세로 부어했습니다.”

“BGCN은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7년 1월 은행권 연합지 ‘US벤티지’가 ‘미국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7년 1월 은행권 연합지 ‘US벤티지’가 ‘미국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7년 1월 은행권 연합지 ‘US벤티지’가 ‘미국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정책 50년 이상으로 ‘금용계의 대부’를 했습니다. “상대 졸업 후 1959년 처음에서 상업은행에 입사해 지금까지 오고 있는 한 회계에 매달렸지만 ‘대부’라는 말은 신택한과 관련입니다.”

“민회장은 1959년 상업은행에 입사. 비서실장과 도로소장, 국제부 차장, 그리고 4차 실장을 역임했고 다시 실장으로 상무이사과 상업감사를 거

당시 부위 19000나 오면 바 이다. 지난 2006년 9월 경제전문지 ‘Fortune’이 선정한 미국 내 금성장 100대 기업에 포함 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7년 1월 은행권 연합지 ‘US벤티지’가 ‘미국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7년 1월 은행권 연합지 ‘US벤티지’가 ‘미국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US벤티지’는 4월호에서 월서은행을 중형은행 그룹 중 최상위권의 경쟁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도했다. 최근 3년 내의 자산유동성을 기준으로 ‘중형은행’이 일지의 ‘중형은행 경쟁실적 톱 200’에 따르면 월서은행은 평균 26.04%를 기록 3월 세 차지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적을 올린 것이다. BGCN은 “미국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 70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미주 동료 은행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 민수봉 회장이 부인 김명희 여사와 함께 한 모습이다.

“많은 금융계의 황금기였던 20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한미은행이 몰려 온 덕을 봤습니다. 나다만 앞으로는 당시만용의 한미은행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핵의 부자가 많이 팔렸지만 이미 많은 부자가 이뤄졌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은행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월서은행은 창래도 현재 우리 나라 2000억은 8000억이다. 그러나 시장은 훨씬 확대된 것인데 너무 저평가돼 3년내에 2000억에 4500억 정도를 줄 수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1~2 개는 손에 안들어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큰 은행들이 다 남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측합니다.”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져 치릴 때요. 열심히 살겠다”는 말이요. “핵이 되 치러가 배려가 된 이루어도 있었어요.”

“상업은행 대리 직원 채용을 만들었는데 당시 은행권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대리로 승진 하려면 어떤 사안을 만들어 줘야 하죠. 치타처럼 빠르고 열심히 살겠다. 뭐 그런 의미였죠.”

“(민회장은 창래도 서천 출생으로 호미어니와 함께 월남해 고교를 졸업 오진 학교에 오. 우리 시에서는 판공행사로도 고위관리 1등을 놓치지 않으 수하겠다고. 대학에서도 고학성 받은 이어져 그만큼 빠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뜻일 것이다.” “그만큼 위한 별도의 비결이 라도 없네요.”

“정기적으로 한식 축제도 해외에서 개최를 다니니. 이에 더 성세를 아주 중요 시 하는데 소식하러도 특별히 보고 한 음식은 절대 빠르마.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정찰 발표하면 적이 없지요. “진정한 한식을 전한 생각이 있겠다”는 발언은 틀림없었다고 합니다. BGCN이 해외에서는 중화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바로 건강장조. 온외 비호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2년 후를 염두에 두기 라도 하지는 것 같네요. “나이가 들면 가장 필요해하는 것이 시시 때음이 맞는 친구와 친교활동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하며 허기가 시지 않아야 사이가 될까봐요. “그렇지 못하면 수복 하려면 어떻게 저우하면 되는 게 이리 별까 하냐. “나의 자객들이 더욱 커집니다.”

“<<민회장은 1959년 10월 15일 ->> 1959-1959 도쿄 ->> 상대 졸업 ▶1959-1974 상 인 은행 ▶1974-1978 상업은행 비서실장 ▶1978-1981 상업은행 도쿄 지점 매니저 ▶1981-1982 상업은행 국제부장 ▶1982-1985 상업은행 시카고 지점 매니저 ▶1986-1990 상업은행 Executive Director ▶1990-1991 상업은행 Chief of Internal Auditor ▶1991-1994 상업은행 차장 ▶1994-1999 BGCN 한미은행장 ▶1999-2007 CA 월서은행장 ▶2011-2012 엘리스 UC Bank 은행장 ▶2013-CA 은행장 ▶세번재 민수봉 회장



민수봉 회장이 부인 김명희 여사와 함께 한 모습이다.

“민수봉 회장이 부인 김명희 여사와 함께 한 모습이다.”

이달의 초대(18) 박중수 박사(수석대 58)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음에 감사하며 선행과 크리스찬의 삶을 추구하는 '박중수 박사'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학을 연구하시다가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향”

서울대 문과대학은 순은 인제와 통학하신 분만이 너무 많다. 내 면의 삶에 관련된 박중수 동문님은 겸손히 여려의 동안 인터뷰를 사양하시다가 지체롭고 현숙한 내로 평생을 같이 해온 여학생을 애정롭게 권유 부탁하여 몇 차례 웃음을 지으며 인터뷰에 임하셨다.

지난달 편지회원장과 서주경 사무국장, 박중수 총무국장이 박중수 동문님 덕을 보았다. 나이가 지긋해 보니 LA 한인타운 가까운 지역이 편리하여 구입한 새 집과 같은 지역을 두리마기 사들이기 가능하리라 예상할 지도는든 하 나의 의견도 받아들여 주었다. 신앙상에 바탕을 둔 그들의 자택에서 편가 지어졌을 양을 알지못히 회원의 흥분함보다 내 의견의 흥분함을 절비한 중문스개가 딸도 없지 않는 일이 아닐까? 박중수 동문님은 1968년 서울대 법과 대학을 입학, 졸업후 1967년 도미, 미시간 보스턴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의과대학 임상학 연구소 Park Division에서 사외 약제국을 경영하면서 Director Doctor 등Training 사되었다. 1994년 부친 2년 전 Averett 대학 학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박중수 박사님은 최성현 현신 봉사활동 학교를 크게 발전시켰고, 특히 한국 유학생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후원장으로도 도와 주셨다) 교외에 있는 목사님의 주선에서 이루어진 이 지역 개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

대학 최정직임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한 장차시업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학사생활 때부터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다라하기 위하여 가정교사를 했었고 또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일이 어렵고 힘들었다. 다행히 서울대 교복을 입으면 가정교사 하기가 쉬웠고 나는 통학하신 고교나, 원경수 박사님, Scarfield 박님, 오순식 박사님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워 가정교사 하기도 수월했고 장학금도 받았다. 어려움에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저런 기억만이 없지 않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

발은 주셨음을 주장은 저의 일부만 배로도 있어 송구할 뿐이다. (현재 서울대 수석과 대학과 워싱턴 침례 신학교에 장차 재단을 마련했다. 어려운 역경에서 도움을 받음대로 참 사임으로 실천하시는 박중수 동문님의 모습에 감동했다. 워싱턴 침례 신학교 대학교에 장학금 10만 달러 기부, 서울대 수석대에게 10만달러 기부, 서울대 미주재단 10만달러 기부, 제이한인수의사회, 서울대 미주총장회, 유학생들에 불쌍한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장차인간 감사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으로 이주하신 동기이자 1969년에 누님이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하셨을 때도 유학생이 없을 때였는데 노도 통학한 사마귀 기부를 원했다. 미려한 향취이 높음을 이부기 위하여 공원이 있어 연구하며 연구에 공헌이 될 일만 유학을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등, 모든 공헌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다.

“직원들은 15-30년간 함께 일하고 있어 가족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기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일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노력 하였다. -사업가로 진행하게 된 동기와 현상- 사실 나는 사업가 보다는 자연 과학 계통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기게 될 줄은 없었다. 1973년 Carter Part 2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조맹부 생활하면서 발전하였다. 1987년에 U.C.L.A. 캠퍼스 앞에 시카와이 현재 미시간 대학교와 U.C.L.A. 앞에 150평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감사한 것은 모든 Tenant가 아름답고 나는 학생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늘 학생 그들에게도 짧게 살고 있다. 또한 늘 새롭고 힘이 솟는다. 모든 가정이나 사회나 사업은

인간관계에서 실패와 성공이 많이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종업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기 사일 같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것에 열심으로 감사한다. 그들은 나의 사업에서 15-30년간 함께 일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가족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사람들을 나에게 보내 주셨기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신학을 하게 된 동기와 교회 생활 및 교회활동- 동기: 1900년경 워싱턴 침례 신학교 학생님이신 김호성 박사님께서 교회에 소개를 통해 불교를 하겠다고 저의 집에 며칠 계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쓰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나도 말씀을 더욱 배우고 싶어 연구하고 싶었다. 이런 권유를 신학 석사와 목회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런데 학위를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은 신학은 지식이나 학문으로 성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행하는 능동으로 하나님



1 박중수 박사 부부의 모습이다.

그것은 유학생 가운데 어렵다 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어려움을 도와 주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분들이요, 지금도 여태도 한국에 두 분이 나오셔서 되게 대단, 출산할 때부터 있던 신학교 동문들과 영어에서 도움을 입은 분들이 모두 모이게 늘 환영회를 하고 있다. 성경도 읽어주시고, 서울교육대학 장기기 교수 추천서에서 1998년부터 2년간은 World Christian 신학교에 이사장으로 임하고 2001년 부터 10년간은 IBS(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지도자 훈련과 교육시키는 기관)에 이사장으로 임하셨다. 현재: * L.A. 침례교회(박성근 담

우어 주셨듯 내면의 터의 모범이 되게 함을 보는데도 하여금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한다. -내조의 여명인 아내와 가족 관계는- 나는 친구 동생으로 내가고 통학하셨던 학생도 있었다. 그후 1997년에 결혼하여 함께 도미했고 나의 아내는 나의 반지자이며 목회자이다. 46년간 나의 그림자 같이 아내의 의과대학에서 일할때 아내의 미시간 대학 Accounting Dept에서 10년을 일했고 아내가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후 Eastern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워싱턴 침례 신학교에 선교회원을 맡았다. -애가 반 박(1)정음 여섯남은 신학성이 가족과 성경 장인 31장의 현유한 이상을 본인이 남서 생활의 Motto로 간직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만반이 지켜줄 줄은, 모든 여자분들이 본 받아 될 모범이 아닌가요? "자녀들에게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쳤으며, 부지런하고 성실함, 기도의 삶(나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기도생활이 제일 기쁘다는 모습을 보이면 웃는다), 남을 배려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키운 자녀들은 모두 명문대학에서 석사, 박사로서 훌륭한 성실하게 자랐다. 자서는 1남 2녀로서 두말은 결혼하여 각각 남편을 두었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다. 모두들 좋은 직장에서 Top Leader 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감사하다. 우리 온 가족은 가능한 한 함께 여행을 하기도 했다. (11식구) 2년 전에 Disney Cruise로 알라스카에, 올해 4월엔 한국을 다녀왔다. 모두들 한 주를 휴가로써의 즐거운 여행이라 또 한번 기쁘게 약속을 했다" 더 특별한 가정의 행복함이 가득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배울하는 두 분의 행복을 보았다.

< 박중수 총무국장 >

-원목 사장은 박중수 박사와의 가족이 함께 모인 집엔, 으름 사장은 박중수 박사과 함께 거주 중인 로스앤젤레스의 주재이다.





유스턴 동창회

서울가든에서 장학금 시상식 가져

유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 72)가 지난 5월 4일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서울가든에서 '2013년 장학금 시상식'을 가졌다.

이 날 총 11명의 수상자 학생들과 가족,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해준 스폰서들이 행사에 함께 했다.

이 날 총 11명의 수상자 학생들과 가족,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해준 스폰서들이 행사에 함께 했다.

'2013년 장학금 시상식'의 부분별 장학금 이름과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김동현 장학금 = 김민우 Charlie Kim
- ▶ 조서호 Leadership = 호동일 Joshua Ho

↑ 유스턴 동창회가 2013년 올해의 장학금으로 선발한 학생들 중 일부가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주영·윤승민·안주영·백준영·정에나·김민우·지상훈.

- ▶ 진기주 Academic = 윤승민 James Yoon
- ▶ 유경자 Music Fine Arts = 백준영 Jun Yoon Baik
- ▶ 임성주 Memorial 열의 분야 = 지상훈 Sanghun Ji
- ▶ Anacon-Rice/ U of H = 양정민 Jung Min Yang
- ▶ 이진원 Academic = 조수지 Susie Sungsil Cho
- ▶ 전수희 Science Eng. = 최



↑ 유스턴 동창회의 이호성 회장이 올해의 장학금 선발과 시상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윗 사진). 아래 사진은 시상식이 열린 서울 가든에서 동문들과 수상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모습이다.

지인 Sally Jean Choi ▶ 이호성 Academic-Eng. Bio = 유민철 Peter Yu ▶ 유세만 Academic-안주영 Ju Young Ahn SNU ▶ Special Achievement/Academic = 정에나 Anna Chung

동창회장은 "특히 진기주(60) 동문께서 부페로 마련된

<승 구민회(공대 91)>



워싱턴주 동창회

골프 토너먼트의 대장정을 시작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김무용, 64)가 떠나 길고 음울한 겨울이 끝나 민물이 거저게를 떠는 싱그러움 봄을 맞이하여 평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4일 Everett에 있는 Walter E Hall 6.C.에서 열린 이 골프대회는 총 10팀까지 이어지는 Tournament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대회로 첫 것이다. 올해는 기존의 회원들 외에도 새로 등록한 동문들의 관심도 뜨거워져 총 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가했다.

이날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시종 활기에찬 분위기 속에 시 즐거움 하루를 보냈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한식당 삼오정으로 자리를 옮겨 시상식과 함께 즐거운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6월의 경기는 서울대 학생회장재 대회로 치를 예정인 바 모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계획이다. <외의 잔여 경기들 또한 매월 첫 토요일에 열린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문회e메일을

↑ 워싱턴주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중 일부가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 참조하기 바라고 있다.
- ▶ 콩코르 각 대회의 참석자 명단은 대회 1주일 전에 확정되므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
- 5월 4일 열린 골프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 Medalist = 주영덕(공대 62)
- ▶ Champion = 팽병규(문리대 70) ▶ 1등 = 한종화(의대 58)
- ▶ 2등 = 김호선(문리대 68)
- ▶ KP = 최준환(농대 58), 이석주(문리대 72) ▶ LD = 윤대근(상대 69) ▶ 평문상 = 고영찬(공대 67)***
- ▶ 워싱턴주 동창회장 김무용>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Los Verdes G.C.에서 골프대회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회장 박경호 문리대 66)가 지난 5월 4일 Los Verdes Golf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열었다.

경호인 12시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에는 청명한 날씨에 보였으나 오후 들어 종종 구름이 끼게 끼어왔던 때로는 바람까지 거칠게 불어대 동문들만의 조정에 상당히 애를 먹어 왔다.

하지만 이날 참가한 동문들은 Los Verdes의 멋진 해안 풍경에 때때로 골프 게임 중에도

↑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김동현(64)·황상민(60)·김홍록(60)·김성수(60)·김성규(60)·이건진(62)·김상현(65)·심원범(60)·권봉선(64)·원기동(64)·김귀섭(61) 동문과 박경호 회장, 아래는 동문부인들 모습이다. (촬영 안은 입학연도)

이따금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17면 계속>



취임식 동창회

모교 오연천 총장 환영 간담회와 ICC송상현 소장 강연회 및 총회

▶오연천 총장과 오찬 간담회
취임식 동창회(회장 함은식)은 유대 77입원과 동문들이 지난 4월 23일 수레우에서 모교 오연천 총장 일행과 오찬을 나누며 간담회를 가졌다.

오연천 총장 일행은 공항에 도착 후 바로 오찬장에서 오찬회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동문들과 정담을 겸한 짧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연천 총장 일행은 이날 오후 3시 조지워싱턴대(GWU)에서 한국의 전통 시스템을 GWU 신축 기숙사에 설치하는데 기술지원하는 MOU를 맺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 MOU에는 한국의 기업입력이 필요한 재정 지원

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WU와 MOU를 맺는 행사는 GWU 한인 동문회 이수동 회장(STG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후 7시에는 워싱턴 주재 특과원들과 미군부대 임직원, GWU, 세계은행 등과 MOU 체결에 관한 기자 간담회도 가졌다. Tysons Corner (VA) 소재 Tower Club 에서 열린 워싱턴 특과원들(32명)과 기자 간담회에는 함은식 회장, 정경태 부회장, 정지근 총무 등이 참석했다.

오연천 총장은 다음 날 세계은행 건물 송현과 MOU를 맺는 행사를 마친 후 New York 으로 이动了다. 이번 오 총장 일행에

1오연천 총장(왼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워싱턴 DC지역 동문들과 대담했다. 앞줄 오른쪽은 오연천 차기 미주동창회장, 송상현 소장(오른쪽 사진 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강연 뒤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는 남익원교수(기획처장), 정종호 교수(국제협력본부장), 안지현 교수(모교 발전기금모금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ICC 송상현 소장 강연회 및 정기총회= 워싱턴 동창회는 송상현(임대 59-사실) 국제행사연구소(ICC) 소장을 초청, 강연회와 정기총회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주거구(OAS)와 업무 협력 논의와 열었다.

ICC 본부는 버클랜드 레이더가 있다고 있으며 발인류 범죄와 집단학살, 전범재판 등을 다루는 세계 유일의 상설기구다.

이날 38명의 동문들이 참석,



상황을 이루었으며, 송 소장은 흥미를 끌 수 없는 딱딱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구사하고 재미있는 화법으로 전혀 거부할 지 않게 풀어써 설명하였다.

시간내내 모두 집중하여 이해 하고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끝부분에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송 소장은 국제송상현연구소 현황을 소개하면서, 행사체

판소의 구성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현재 송상현 안전에 대해 사색을 들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참석한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귀중한 내용을 알게 되어 후회없이 듣기에 너무나 감사하는 의견이 많았다.

송상현 소장은 지난 2003년 처음 설치된 국제행사연구소 초대 재관장으로 선임, 2009년에 2대 재관소장으로 재임, 2012년 연임되었다.

송 소장은 고려 송전우 선생의 손이며, 김상현 전 국회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워싱턴 동창회는 강연회 이연애 정기 이사회를 열고, 당초 6월 계획했던 강연회 등기 기금 마련 글로벌대회 평의위원회 정기간담회 중북미어 개최가 곤란하다는 회장단의 제안할 수, 가을의 음악회로 대체하는 안을 승인했다.***

<장경태 부회장>



이날 글로벌대학 마친 뒤 참가 동문들은 가까운 한식 레스토랑 '송림정'으로 옮겨 마음껏 뒤끓이 시간을 즐겼다.

▶참석도 회장은 "문리대 동문들이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석 해주어 글로벌대학 언제나 아주 활기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참가자를 동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남가주 동창회 김상현 회장은

"헐다가 12인데 오늘 밤말 맞는데 27개나 친다"며 "오늘 오찬이 주루터의 송림정 메뉴처럼 오찬이 주루터로 주루터였다"고 해서 화장을 웃었다.

어는 동문은 "김용환 선생과 친해는 미리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문리대를 하러도 친해는 된다"며 "정말 귀세지기를 느낀다(?)"고 해서 좌중을 웃음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북가주 유대 동창회

봄맞이 '제5회 정기 연찬회'

북가주 유대 동창회 음악회가 'Spring Road'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4일 제 5회 연찬회를 열었다.

전북의 계절 5월을 맞아 관악산의 장미로운 음악이 화사한 봄기를 만끽하듯 관객들에게 찾아왔다.

북가주 유대 동창회 연찬회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객 모두가 봄의 소망이 꽃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찬회는 정효성 동문의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테너 데이빗 김의 멋진 노래로 연찬회를 열었고, 풀꽃과 피리, 피아노 연주 등이 펼쳐졌다.

또한 소르르노 이슬림-김진희의 바퀴-곡원리와 등을 열창해 분위기를 고조되었고 관중들 동문들이 시나위 피리 연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과 양악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고 평화가 바람에 동문들이 멋진 개 해설을 해주어 관객들의 호

1사진 왼쪽부터 최현영, 박은희, 정효성, 김진희, 안영실, 노희경, 서혜원, 이슬림, 안진노, 윤경, 박영애, 김동현, 동문들이 연주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음악이 좋았다.

북가주 유대 동창회는 2년 전 5월 제정된 피아니스트 동문인 신진희 교수를 초청, 연주회를 통해 동문 자녀들의 장학사원에 참여한 것과 함께, 올해는 미대 동문들이 주축되어 이 작품 전시 판매 수익금을 통해 두번째 장학금을 지원한다.

<북가주 유대 동문복지장인 Jean Ahn, Ph.D. jeanhahn.com>



제11대 미주 동창회 임기 말 좌담회

“모두들 2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1대 미주 동창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A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은재 제11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편집진이 앞으로 6월 5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지난 5월 13일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서 모여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정리해 요약 게재합니다. <편집주간>

▶김종훈 회장= “제11대 미주 동창회 회장단이 출범한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음 회장단에게 넘겨줄 때가 됐습니다. 벌써 2년이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사를 치렀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과 ‘Alaska Cruise’를 통한 성장과 미주 평의원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특히 ‘Alaska Cruise’를 하면서 제2회 미주 평의원 회의’ 개최한 행사는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언해주시며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임동 박사)

▶박석훈 고문=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을 훌륭히 치러낸 것만도 정말 괄목할만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Alaska Cruise’를 통한 제2회 평의원 회의’는 우리 미주 동창회에서 Cruise하는 이번 제2회 실시한 행사지만 Alaska Cruise에 집중시켜 더욱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

▶지인수 편집위원장= “제11대 미주 동창회가 처음으로 구 동창회보 임기를 시작하기 전 동창회보 편집위원 인선을 위해 옥스포드 호텔에서 갖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장에서 편집위원을 맡아달라기에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편다던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흥분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지난 해인 2012년 실시한 ‘Cruise 평의원 회의’는 참가 동문 모두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할 줄도 모르고 오래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7대 오종호 회장 때 편집위원장을 맡아 일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11대 역시 아주 무난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미주 동창회는 재정이 가장 큰 문제라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A미이신 정도는 절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 면제되는 곳했지만 동문들의 삶에 도움

▶김재영 고문= “좋은 시절은 더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2년이 정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년은 정말 매우 좋았던 시절이었다. 제2회 오종호 회장 때 봉하촌 적이 있어 벌써 2년에 걸친 동창회 정원을 배웠습니다. 이에 항상 느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문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문들의 구독료 납부율이 15% 미만이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숫자입니다. 우리 세대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차기 회장단에서는 이런 점이 바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영 편집= “회창심을 비롯한 임원진이 그토록 열심히 해준 데 대해 늘 겸손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인은 직책상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임점은 늘 기

▶박석훈(총대 55) 고문

▶지인수(상대 54) 편집위원장

▶김재영(총대 82)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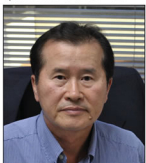
▶김종훈(상대 59) 회장



▶박석훈(총대 55) 고문



▶지인수(상대 54) 편집위원장



▶김재영(총대 82) 고문



▶김재영(총대 82) 편집

←제11대 미주 동창회 임원 및 편집위원들이 지난은 2년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좌담회를 마친후 한 자리에서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훈 회장, 박석훈 고문, 김재영 편집위원장, 지인수 편집위원장, 김은재 회장, 방석훈 고문, 이종도 미주 동창회 편집위원장.

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작은 감자로서 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임동 웃음과 함께 박수)

▶이종도 미주 동창회 편집위원장= “그동안 동창회를 위한 일로 같이 모이긴만 해도 우선 기본은 했습니다. 다만 미주 동창회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기가 워낙 나빠 기금도 동원할정도로서 모금에 힘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모금을 위한 첫번째 행사는 저였으나 두번째 행사를 치르려 했습니다. 이렇듯 김은재 회장을 중심으로 제11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동 박수)

▶김병연 17개발위원장= “과거 미주 동창회 회장께서는 대략 4-5년 단위로 임기를 했습니다. 오종호 회장 때도 상당한 정비를 저술했습니다. 아마 다음 회장으로 마친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1년도 레이저가 절실해 보입니다. 미주내에서는 미주발전위원회, 미주위원회, 날가주 동창회 등 세대에 따라 기금도 모금하고 있는데 미주발전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동문들에게는 모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기 동창회는 이런 사정을 참고로 해서 처음부터 확실하고 효과있는 펀드 레이저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합니다.”

▶성준경 사무총장= “직책상 동창회의 모든 행사나 사업의 진행을 맡게 되며 특히 동창회보 주간과 총무국장 등 33인이 참여부터 제비집에 분투기를 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달라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너무 많고도 있었고, 또 조금씩 분젠도 있었지만 이예는 어느 정도 눈에 있었던 시기에 벌써 2년이 다 돼 가운은 마음입니다. 상대 동창회에서도 동창회 임원으로 해 오셨다는 건 것은 정말 장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분위기에서 경쟁이 아니라 단결적으로 모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동은 그 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19대 대 개측>

▶김재영(총대 82) 편집



그동안 실무적으로 약간의 문제와 소문 메트릭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의 참여와 헌신에 고맙고 감사할 따르는 바입니다.

▶백옥자 총무국장: "부족한 것을 동창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총 회장님께서 리더십이 강해 동창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오셨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회의 할만하진 않으나 그렇듯 잘못해서 아쉬운데 문분들이 더욱 열조께서 더욱 재미있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바라겠습니다."

▶김호석 재무국장: "동창회가 저속으로 목적을 내어오나 하나 적자를 면치 못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음 차기 동창회에서는 특히 이점에 유념해서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층들은 동창회보로 거의 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동창회보가 되지 못한 점이 유감입니다. 차기에는 젊은 층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동창회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석호 고문: "처음부터 우리가 기기에 중점을 두어 젊은 층을 대거 권입시킬데는 선취할 수 있도록 임명해서 권입회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년 권입회에서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개인적 사안이나 업무를 이유로 탈퇴를 끊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데 너무 지극히 중요하지 않았나 어려움 일이지요. 불가항적이었고요."

▶김은총 회장: "젊은 층의 참여 위주 문화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있고 가야 속세입니다. 또 하나, 동창회보는 미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회보인데 그동안 너무 부족 지역의 기사들이 많이 게재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동창회장이 제임 중인 도시의 기사가 많이 나가는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전권주최하는 사실은 영 업에 두어 해야 할 것입니다."

“동창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와 적극적 자발적인 도네이션 유도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 젊은 층의 보다 폭넓은 참여 대책은 앞으로 더 영원한 숙제”

회보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면을 비난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동창회보를 위해 각 지역 동창회에서 보다 적극 열조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 동창회에서 보다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창출 작업을 도모합니다."

▶이종도 기획위원장: "참고로 차기 동창회에 조인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동창회비 문제입니다. 제11대 동창회비 총액 300달러인데 연 75달러인 총액 110는 현실적인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도록 인장하는 방안은 논의했지만 동문 부담을 감안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비가 없게 되고 많았습니. 동문 중 85%는 여의도 동창

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창회보 내용 중 캘리포니아와 미주 관련 것이 사실이나 타 지역 동창회 열조였어는 어려운 일인 만큼 회조에서도 이런 경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라 동창회보 내용도 회조와 동맹에 대한 태도 제의 할 것입니다."

▶서준경 사무총장: "말씀대로 차기 동창회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10대 시카고 동창회에서 쓴 흑자발 내 이유가 있었습니. 우선 시카고 및 단계를 소 본으로부터 약 5년 전까지 도네이션을 받았습니.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동창회비 납부 독려 발원을 사용해서 납부율이 15% 이상이나 됐습니. 게다가 사무실 임대료가 매월

“모교 출신들이 모두 머리를 쏘니나 도네이션을 하는 데는 물론 아무런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분들에 대한 기대와 같은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호츠크 회장님 때 김 모교를 위해 비호적 경제적인 여가 있는 동문은 20명씩 초빙했습니. 그런 다음 동창회의 여러 번 상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홍신 이사’로 도네이션 뜻을 권드려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의 반응도 그 자리에서 3천 달러에 차고 시카고에 1천 달러의 차고인 달리를 기증할 장란 때 모든 일이 있었습니.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부끄러워 하지 않고 강제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도 기획위원장: "관심 있는 분에는 안내도 해주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도네이션 유도 방법 등을 개발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연 1기발원위원장: "공대 동창회의 경우 종종 몇 년 단위로 도네이션하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에게 도네이션의 명분은 없는 일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보다는 그 도네이션을 함으로써 당사에게 어떤 명분이 되는지, 또 어떤 명분이 있는지,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동창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지 미주 동창회 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김병연 2기 발원위원장

▶김호석 고문 (81) 재무국장

▶서준경 사무총장 (88) 사무총장

▶백옥자 총무국장 (87) 총무국장

▶김은총 회장: "김건진 고문님 말씀하신 동문들의 격려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으면 미주 동창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 동문들 중 동창회비를 한해의 15% 이상만 내도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됩니다. 1년에 75달러가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것은 누구나 그나마 부끄럼이 없을 수 있는 액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네이션에 명분을 세우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 정신이 없으면 서울대 출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동창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지 미주 동창회 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김건진 고문 (81) 재무국장

▶김은총 회장: "김건진 고문님 말씀하신 동문들의 격려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으면 미주 동창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 동문들 중 동창회비를 한해의 15% 이상만 내도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됩니다. 1년에 75달러가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것은 누구나 그나마 부끄럼이 없을 수 있는 액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네이션에 명분을 세우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 정신이 없으면 서울대 출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동창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지 미주 동창회 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김건진 고문 (81) 재무국장

▶김은총 회장: "김건진 고문님 말씀하신 동문들의 격려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으면 미주 동창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 동문들 중 동창회비를 한해의 15% 이상만 내도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됩니다. 1년에 75달러가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것은 누구나 그나마 부끄럼이 없을 수 있는 액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네이션에 명분을 세우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 정신이 없으면 서울대 출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동창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지 미주 동창회 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김건진 고문 (81) 재무국장

▶김은총 회장: "김건진 고문님 말씀하신 동문들의 격려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으면 미주 동창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 동문들 중 동창회비를 한해의 15% 이상만 내도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됩니다. 1년에 75달러가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것은 누구나 그나마 부끄럼이 없을 수 있는 액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네이션에 명분을 세우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 정신이 없으면 서울대 출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동창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지 미주 동창회 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김건진 고문 (81) 재무국장

▶김은총 회장: "김건진 고문님 말씀하신 동문들의 격려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으면 미주 동창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로 동문들 중 동창회비를 한해의 15% 이상만 내도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됩니다. 1년에 75달러가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것은 누구나 그나마 부끄럼이 없을 수 있는 액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6년이면 총 15%도 안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네이션에 명분을 세우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 정신이 없으면 서울대 출신,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동창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지 미주 동창회 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

▶김건진 고문 (81) 재무국장



▶김은총 회장 (81) 재무국장



▶김건진 고문 (81) 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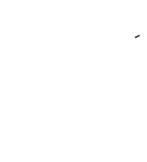
▶서준경 사무총장 (88)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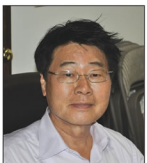
▶백옥자 총무국장 (87) 총무국장



▶김호석 고문 (81) 재무국장



▶김은총 회장 (81) 재무국장



▶이종도 기획위원장 (86) 기획위원장



▶김호석 고문 (81) 재무국장

판악재단/Acro장강<막 변호사의 영화 이야기>-4>

Parfuma: The story of a Murderer



박준철(문리대 79) 변호사

세상엔 천재와 기인(奇人)과 예술가들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그렇게 타고 나고, 또 그 일부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는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 추구하는 일이 인성의 전부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던진다. 그들에게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오늘 하려고 하는 영화 이야기기는 범죄에 사로 잡힌, 그렇게 운명지어진 한 인간의 이야기다. ▶영화의 시작> 영화는 시작부터 우울하다. 18세기 중엽 프랑스(그러나 프랑스 영화는 아니고, 프랑스-스페인 연립 제정자들이 의뢰하고 주조한 장미 배우들이 출연하여 영어로 대사가 되어 있는 영화다). 한 범죄자가 분노한 시민들 앞에 내세워진다. 죄망망이로 내리쳐질 몸의 12대 연립부문의 뼈를 잔인하게 부러뜨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눈을 깨는 극형에 처한다는 판결문이 낭독된다. 골짜기 울시리처럼 아픈 고통을 가하였다는 의지다. 형을 집행하는 형에게는 인체의 지체를 때를 때를 갈라는 잔인한 형질의 명령과 함께, 영화는 몇 장면을 채고 계속 그렇게 우울한 기조를 유지한다(그러나 장막 후 밝은 빛살

이 비치듯 마지막 장면에서 대 반전을 이루고 관객을 즐겁게 한다). 짧은 영화에 대해 저찌 이 범죄자, 또래 때 무슨 죄를 지었었기에 그토록 가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잔인한 형벌의 원인은 영화는 그의 출생부터 보여준다. 어머니는 파리의 시골에서 생선상을 하는 여인. 생선을 도둑 내다가 전열대 아레스를 지기를 즐겼을 때, 딸을 죽이고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선을 판다. 생선 전열대 열 밥과 딸과 내버려 둔다는 신생아를 보고 사람들은 여인이 딸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여인은 초췌하고 만다. 아기는 그 아열에 맡겨지고 15일이 되자 마자 나열로 팔려 가족 공장에서 일한다.

▶비극적 출생, 그러나 뛰어난 후자> 그러니 뛰어난 후자? 그러니 아이 Jean-Baptiste Grenouille는 비범한 듯이 어린 군모였으나 애민하고 뛰어난 후자이다. 개이렇게 뛰어난 코를 가지고 사람들 을 하라는 것을 가장하는 '개코' 라는 표현을 쓴다? 그는 세상에 모든 냄새를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도 맡을 수 있다. 극히 미세하고 작은 부분까지 구분한다. 그는 수천 수만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좋은 냄새라고 좋아하고 나쁜 냄새라고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서 하나의 다른 냄새를 구별한다 Amor and Psyche를 제원내고 이 특별한 Baidin은 그의 가족공장 주인에게서 사 온다. 그가 만드는 향수들은 물론 대 성공을 한다. 그러나 그는 물론 은 일만할 수 없다. 가장 좋은 냄새, 처녀의 체취가 들어 간 향수를 만들어야 한다. 향기 보존을 위한 은 옷 실처럼 실패한 그는 향수제조의 Mecca 인 Grasse로 간다. 거기서 실험을 계속하는데 처녀의 체취를 수습하는 일이 없지 않다.

들(가족 배반)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는 가족 공장에서 맡아 보지 못한 수천 종류의 냄새를 경험한다. 그는 당시, 공전의 대박을 터뜨린 향수 'Amor and Psyche'의 냄새도 접해 보고, 무엇보다도 향수제조의 여인이긴 하지만 자취를 파는 피어라는 뜻밖에도 좋은 냄새를 맡게 된다.

후반의 살인에 연쇄살인까지> 처녀의 향기에 반한 그는 그녀를 지기 위해 그녀를 찾아 가는데 순전히 후각만으로 그녀를 찾아낸다. 그리고는 무례하고 그의 코를 냉성 처음하는 처녀의 몸에 갔다 된다. (Grenouille가 뒤에서 그녀의 몸을 껴안고 있다. 딸 때까지도 그녀는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 이유? 딸인 여이? 문해서? 아니, Grenouille의 몸에는 체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야 함추 놀란 처녀는 소리를 지르고 일리한다. 그는 처녀의 입을 막는 데 그리다가 그녀를 죽이고 만다.

그는 처녀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냄새를 빨아 들인다. 옷을 벗기는 순간 관객들은 열악 처를 능욕이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의 표정은 오로지 처녀의 체취 일뿐이다.

잠을 못든 그 날 이후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음을 깨닫는다. 아름다운 냄새를 영원히 보존해야겠다는. 그는 이걸 그는 실험해 가는 이빨 같이 출신 향수 제조가 Baldin(Dustin Hoffman 분)을 우연히 가족 배반한다 만나 그의 견습생이 된다. 몇 분만에 이 둘은 모르지만 냄새 코제를 구분해 Amor and Psyche를 제원내고 이 특별한 Baidin은 그의 가족공장 주인에게서 사 온다. 그가 만드는 향수들은 물론 대 성공을 한다. 그러나 그는 물론 은 일만할 수 없다. 가장 좋은 냄새, 처녀의 체취가 들어 간 향수를 만들어야 한다. 향기 보존을 위한 은 옷 실처럼 실패한 그는 향수제조의 Mecca 인 Grasse로 간다. 거기서 실험을 계속하는데 처녀의 체취를 수습하는 일이 없지 않다.

동문 시 감상

겨울산

차가운 햇빛 하늘 아래
추억만이 떨어지버린
나무들이
눈발에서 펴며 울무짓는데

오귀진(공대 85)
컨설턴트·시인



울스런 구름과 마을들을 아우르며
숙면의 솜이 있는 겨울 산이
되기는 시련을 견뎌낼 수
없고
멀리서 타이르는 듯 하다

기근진 인코의 세월에
무단한 비소가 락을 불꽃
같이 사발보다 커서는
안된다
분수를 지키고 하늘에
거뻛혔던
아저씨 같은 겨울 산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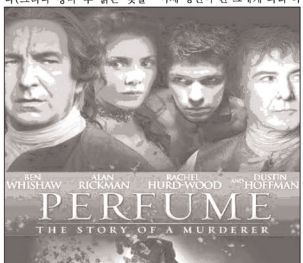
오늘도 나 홀로
세로의 별편이 서서

창녀를 사다가 성행위는 않고
세화만 모으려는데 그에게 창녀
는 꿈과 노기고 목을 물리
며 나가려 하는데 이미 목로에
걸려있는 그에게는 그이
하루되지 않는다. 창녀를 죽이고
체취를 모은다. 이렇게 다
양한 나체의 체취가 필요하다
must Grasse의 처녀를 연립
하게 가가 줄을 사내야 한다.
그러나 창녀(물론 목숨 확보
이제는 않는다).

그런데 Grasse의 처녀를 만
내서 그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처녀(물론 그 체취)가 있
는데, 바로 Grasse 지구의 한
마을에 사는 한 처녀이다.
그 유지는 아내도 일도 호
키는데, 그런만이 귀면 커져
갔다, 물론 남아갈 세대는
없고 아프지 않은 자들의 목
숨을 안는다("You are all
I have left.")

▶ "I needed her." > 아버지
는 연쇄살인범으로 몰려 불
호를 위해 Grasse로부터 곳
으로 딸을 사내서시키면 안
된다. 딸을 수직해오는 Grenouille
의 손에 결국 희생되고 만다
(원인이 된 소설에는 이 처녀
가 결국 죽는다. 그러나 영화
에서는 기다렸다 죽이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 희생으로 그는 천상에서
나 되지만, 딸로는 포인 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황홀하게
만든다. 딸이 지겨워 만드는
마지 그들 생애의 순례처럼 만
든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의
향수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죽은 딸의 나신 앞에
정규하는 아버지는 복수를
명시하고 결국 Grenouille를
제포해 딸의 아버지에게, 목
숨을 200년에 나눠다. 극형
표를 이룬 Grenouille는 고문도 아
니 Tom Tykwer이 맡았고, 주연
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성격의 배우 Ben Whishaw 가 맡
았다. 140분이 넘는 긴 영화라
는 재미없다. 등급 NC-13으로
승한 장면엔 배로 여인 자
니를과하는 보지 말고도, DVD로
도 물론 나와 있다.***



Patrick Siskind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
Director

▶영화의 원전인 독일 작가
Patrick Siskind가 쓴 같은 제목
의 베스트 셀의 독일어판 소설
이 1987년 200만 부를 넘었고
46개 언어로 번역됐다. Patrick
Siskind는 그것까지는 잘 알려지
지 않았는데 이 소설 원전으로 일
막 세계적 작가가 됐다.



여행기

“Mau이 어디예요?” <상>



정순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 **출발** Mau이 머나 머나 날, 날마다 우리들의 가슴을 파르르 울리고 선풍부채 일나 열이 보니까 Boston Coach를 타고 코란 공항에서 4시간이나 걸려서 말라스에 도착한 후 다시 마우이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는 승객으로 꽉 차 있었는데 우리처럼 피리부러워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두 사람 밖에 아무도 볼지 못하고 모두를 시한부 돌리듯 일은 것을 보니 아마도 보르진 같이 추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 꼭 우리가 대포가 되는 것 같다.

8시간 이상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난생 처음 코피가 났다. 물을 많이 마신 덕분에 화장을 잘 수 들박박하 하면서 가만히 내내를 둘러 보니 한참만도 안되고 목감기 소음, 타르로 코를 막고 있었다.

3만 피트 이상 나는 고도의 비행기 안은 너무 건조한 듯 그러나 모두들 텔레비전 분위기가 모두들 기분이 좋은 인상을 준다.

▶ **친구부부와 만남** Kahului 공항에 도착한 다음 기차를 찾게 있는데 휴대전화기가 울린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우리와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친구의 목소리다. 그 옆에는 친구 남편, 또 친구의 셋나니 딸, 보르진 가족의 만남의 순간이었다.

Kihei에 4시간은 친구 지인께서 우리 다섯이 묵을 곳이 주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난다는 건강정보까지 가져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도합 마우이 1009년 기념사장은 작년 초 지난 2003년에 한국관을 지었는데 Iao Valley State Park에 있으니 꼭 들러

서 보고도 알려주었다.

▶ **자랑** 한 미국인 며칠 후가 본 이곳은 신선이 사는 것 같은 표향한 산꼭대기부터 내려오는 여러 줄기의 폭포의 모습은 친구 사이로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한국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노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며칠 전 공항에 전철하게 개나서 신분이 한국 기념관 건물에 입주할 것 같은 새겨진 인상을 보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중국 이민역사(1778)와 일본 이민역사(1806)가 한국 이민역사(1903)보다 훨씬 짧은 기록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전 화웨이 친구의 정보와 1회 중국계통과 해나 다시 탐방 놀았다.

한국과 정체를 빌렸는데 우리의 여자가 되었다. 공항까지 갔고 코르세에서 꼭 식료품을 사야 한다고 미국 친구에게서 우리들의 꼭꼭한 Labina를 향해서 마우이를 갔을 것이다.

▶ **셋째 밤** 이번 주순서 사실 이번 여행은 Singapore에 살고 있는 셋째 밤이 주선해서우시어 오게 되어서 거의 준비없이 가

보니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와 있는 곳이 달력에 나오는, 아니던 여행 전문잡지에서 보던 곳과 비슷해서 한 동안 열렬히 열었다.

▶ **헬프** 첫날 우리는 남편이 계획한 Road To Hana로 신나게 떠났다. 마우이에서 북쪽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태평양을 끼고 도는 Hana Highway는 일명 ‘뱀길(Snake road)’로 불리는데 620개의 구불구불한 돌출은 길과 59개의, 차가 한 대만 갈 수 있는데 많은 이주 중은 오래된 더리가 있는데 더리를 건널 때는 ‘뱀행’ 혼을 몰러서 차가 지나간다고 저 쪽편에서 오는 차에게 신호를 보내고 지나가야 했다.

“마우이를 가던 차가야할 곳인데 헬프! 헬프!” 여행자들은 감격적으로 말해주었다.

하루종일 걸려서 우리는 마우이에서 왜 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기업을 지니며 쇼로오로 뒤돌아선 표향한 산, 그리고 수없이 나타나는 계곡과 물이 흐르는 강, 절경, 일여 보지 않는 푸른 에메랄드 바다와 하얀 파도, 경정색을 띤 모래사장 등이 이어졌다.

▶ **대사장은 아름다움 중에서** 또 나를 사로잡는 것은 정글속에서 차가 나타나는 환상적인 곳으로 오렌지 빛깔의 불나부(?)였다. 그것들을 보며 계속 “와우!”



1구름과 안개로 가득 찬 Haleakala Crater 에서 일출부터 친구 남생수, 친구 부부 부재데서, 나, 남편 박영철(간호 68), 나는 우리와 더리를 달려 질은 안개와 바람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수많은 계곡의 줄기찬 폭포, 정글, 열대식물,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에메랄드 바다와 하얀 파도, 경정색을 띤 모래사장 등이 이어졌다”

▶ **미주에 와서** 살면서 40년이 훌쩍 지나지만 지난 20년 이상을 살았음 이곳 겨울에는 그저 뉴잉글랜드의 눈 속에서 파묻혀 살았지 플로리다 말고는 떠나지 아니 하였다.

오하우 섬과 Big Island는 몇 년 전 결혼의 합치할 때 봐 오갔는데 마우이엔 저의 아는 게 있었고 오 친 친구들에게 소개 받았으니 모두들 “그 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자랑스러웠다.

저는 Resor지역이 아닌 산 아래에 있는 개인집이었다.

나는 열린 친구 부부에게 Master bed room에 있으니꼭 하였고 아침에 모두들 일어나

소리내 내는 나를 보며 친구는 “아! 너는 정말 감성적인가?” 하고 한 마디 하였는데 나는 흥분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와우! 나부들!”이라는 절도 국립공원에서 사서 펼쳐보았는데 그 찬란한 빛깔을 선사한 그 나무 이름을 아직도 찾지 못해서 궁금하다.

▶ **피피아를 직접 따먹고** 우리는 아침을 먹으면 집을 나와 하루종일 마우이 섬을 돌아다니고 저녁에 돌아와 자기 잠에 는 것처럼 편하게 음식을 해서 먹고는 우리가 현재, 어디서 살지 않건 편한데 다 있어보고 할 정도로 날마다 재미있게 되고 있었다.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가 몇 정원을 걷고 싶다고 해서 가는데 날마다 무슨 과일 열매인 것 같은데 키가 큰 나무들이 열려

라서 열여 보니 썩은 과일도 안보이는데 먹어 보니 미국 내륙이나 중간이 왜 때 먹어본 맛보다 훨씬 맛이 더 있는, 또 양이 엄청나게 작은 과일이었다.

그 다음 날도 안은 정글계 해와고는 남은 과일들을 때서 먹으며 우리는 나루크 웃고 순간순간 “I love Maui!”를 모두 외치고 “나루 좋다!” 라는 절경을 소리와 함께 온 몸이 느끼는 기분이 시킨이었다. “Snorkling 하기 위해서 아 일러를 준비한 마우이 숙소에 들어갔으니 바다는 우리가 가

심어 없었지만 이때는 지적적인 눈을 쫓길 때 필리코 사 진을 촬영 찍었다.

▶ **달나라** 가기로 친구 부부들이 이 분화구 근처에서 이곳 지형이 달나라와 비슷해서 언젠가는 갔다는 정상에 도착했으나 절은 구름으로 가득 차서 거의 가도 못갔던 한 동안 볼 수 없었다.

친구 남편께서는 산 정상에서 약간의 이더러를 중간이 나타나서 갔다고 함께 찍었는데 하리크는 길히 하지 못하고 VISITOR CENTER에서 기다려 왔다.

이렇게 이리 높은 정상에서와 열이 때 NATIONAL PARK guide를 따라 구름 속으로라도 따라가서 촬영을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오려는 초음속 명칭을 보라고” 한다.

▶ **고산식대의 희귀식물** = 가이 드는 구름과 안개 속에서 밟아 들어 보려는 경정색 화산들을, 특히 이곳 7,000피트에서 10,000피트 이상에서만 살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서 여러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 **Silversword (Ahinahine grey, grey, very grey)** 라는 희귀한 기원 온적 열매를 된 피피아는 키가 9피트까지 자란다” 한다.

이 식물들은 평생 동안 똑같은 꽃을 피우는데 바람 속에서 수백개의 씨를 보라색 꽃에서 터져내고 죽는다고 하며 방문객들에게 이색은 “만지고 안된다.”는 주의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 **내 친구** 약속은 하이라이 꽃이 필듯 도착, 물음도 나쁘도 들었던 때 두고 성격도 내구 명하고 적극적인 이이 국적이은 학과 교수가 된 게 앞으로 자랑스러웠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총학생회 부회장이 되었는데 내구 크게 구름을 뚫던 그 친구를 45년만이나 지난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내구 느릴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아직도 사귀고 싶어 하는 구름 속에서 두 오렌지색의 내구 친구를 만나서 아주 자못의 생사고로 있었다.

▶ **고맙다** 마우이에서와 주에서...에>



01.31.2013

21세기 에너지 동력자원과 ITER의 실상 ②

주영송 So. D.

사대 물리교육과 56년 졸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금과 1955년에서 20년 후에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발전된 것이라든가, 그 정도의 높은 권위가 되어 세계 각국을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대대한 예산을 피우며 연구를 개시하였으니, 이제는 각 국가별 예산도 증가되고 어리고, 전문가와 확보도 적지 않아, 사실상 서서히 담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막대한 예산은 소비하면서 연구 생산에는 성공하였으나, 평가적인 산업 목적적으로도 유용한 사실도 실패하였다.

원론적 숫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여 과학 연구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을 정치는 단계적인 성공 과정에 따라, 그 다음 단계로 투입되고 취외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순서가 바르지도 않은 연구 지원 정책이 수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2] 핵자력 분열 에너지와 방사능 물질

우리는 헬륨(Helium, 약자 He)의 원자핵(2개의 양성자+2개의 중성자 = 질량수 4)의 beam 이고, 중심은 용전자의 beam 인데, 위험을 방지하도록 방호막이 되어 있다. 전자기판은 Y 과 중성자의 beam은 매우 강력하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불가능하다.

원자력(분열 에너지) 이용의 시동 스위치를 작동하는 순간부터 이 두가지 방사선은 원자로 시설 전체, 제어실(제어 조종) 전체를 방사능 물질과 시키고 주변 전체(공기, 토양 포함)를 방사능 물질화 시키며 계속된 대량사상이다.

고방사능 에너지, 저방사능 에너지에 의한 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지어해 매립하여도 자국의 약국의 변동에 따라 방사능 용수는 파괴되고, 누설되어 지하수, 토양 모두를 방사능 물질화 하고, 사수한 폐기물도 집금하고 있다. 안전한 폐기장 장소도 없다. 세계 각국의 현실을 조사하면 이러한 파국은 수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수없이 나타난다. [7]에 이 선을 참을 수 없다. [8]에 의하고, 생산량이 부족하여 고가임으로 정부하게 사용될 수 없다.

남 이외의 물질로서는 현재 알려진 것은 없으나, 정성적인 것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7)에 이 선을 참을 수 없다. [8]에 의하고, 생산량이 부족하여 고가임으로 정부하게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공개할 수 없고, 정정적인 면에 조사가 끝나야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또한 핵, 제3의 방사선이 이미 여러 나라에 방사능 유출도 있다. 특히 고강도 결합금의 성질도 있고, 또 여러 나라에 등

특히 핵위도 갖고 있는 개방태에 대해 “모든 이익을 따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핵은 사용될 것이다” 고 약속하는 시업 참여자가 있어서, 그 특성과 핵융합에 대한 심층을 필자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하는 국제계 사실대로 증명했다.

그러나 핵위도, 핵의 원자로에 화기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 것을 예상하고 여야 정치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뇌물과 다른 형태의 무담보 대출을 요구한 은행, 금융기관이 대타격을 입은 결과 [10] [국정감사] 승기구의 고리대빔에 대해 1956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남일 구, 최태의 피해와 관련된 항목이 고되었다.

‘남’ 총책임자는 사서로서 대타격을 입은 여객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사기가 어떤 경우 무효로 하게 하고 여객을 무효로 연방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도로 강철 합금의 불발형 재료와 고수준의 유전분 불발형 합금과 실로 하므로 ‘남’의 유일한 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출세와 고병의 대별되었다.

“방사성 폐기물은 엄격히 지하에 매립해도 지각의 변동으로 용기가 파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각국의 현실을 조사하면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는 선진국도 그의 목적대로 생산하지 못한다. 현상 know-how 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은 실제 생산물은 다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부부 연방도 이런 생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공조까지 도와주었다. 실제 생산은 도와주지 않았다.

‘남’에게서 불발 자금을 모으므로 즉시 국으로 환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차는 방사능에 국채처럼 없을 것이다. 그 개발 계획에는 이인정 죄상이었다. (참고: 청와대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과 직접 면담, 직접 약속한 분담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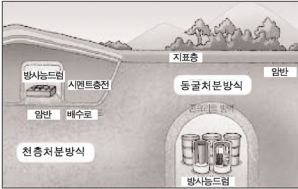
동북쪽의 원자로보다 나은 목적과 성능을 가진 미국 전력망 (100%) 생산과 유전분 활용 수 있어 원자력 분열 에너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학 기술 정책의 우선 순위는 이 두가지 폐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 핵사고 급진이다. 연구비 받고 생산과 유전분 활용 수 있어 원자력 분열 에너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학 기술 정책의 우선 순위는 이 두가지 폐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비 받고 생산과 유전분 활용 수 있어 원자력 분열 에너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학 기술 정책의 우선 순위는 이 두가지 폐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며,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성공해야 한다. 자원이 풍부하고 용량이 넓은 수소를 사용하는 방사성으로 핵 소용되어 부패하지 않지만, 산 사람은 아니다. 비밀로 바다에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결과, 핵양 생태권이 사멸하고, 잠자 있던 식량 생산도 소멸하고 있다. 핵 소용과 핵 소용이 아닌 핵 소용이 핵 소용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연결망에는 없을 것이다.

강방사는 원자력의 발전과는 별개로 소멸되기 쉽다. 방사성 폐기의 발전기는 매우 쉽다. 방사능 발생하기 쉽다. 비록 이고 지구의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중성자는 Plasma 상태에서 물리학적 이 플라즈마는 새로운 기계적 연구 분야로, 언제 핵융합 연구가 성공할지 모른다. 핵융합 연구가 10년-100년간 연구 분야를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일본은 과학에 대한 연구가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 미국 지각의 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실용화하는 문제가 매우 많다.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진의 제4의 상태를 Plasma(플라즈마)라고 부른다.

우주물리학적 연구에 Plasma 추진하면서 고출력 레이저 빔 (Laser Beam), 핵융합기, 중성자 및 전자 빔을 방사하여 중성자 및 전자 빔을 조사하여 핵소 및 플라즈마를 초고온으로 가열하는 핵융합을 유도한다.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3] 원자력 융합 에너지

대략 51중의 핵융합 반응중, 3가지 중의 모두 발달반응이므로 중성자원으로도 이용 가능하고, 중성자 발생도 적은 장점이므로 발전에도 해롭다.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과학 융합 목적 핵융합

(미시소닉) 핵융합 연구는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과학 융합 목적 핵융합

(미시소닉) 핵융합 연구는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 핵소(핵) 자기융합 핵융합 (인공 태양) 기타 핵융합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이온은 제어기 나왔다. 그러나 이온은 제어기 가변 한 온도다. 이 경우 수소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2년 7월 1- 2013년 5월 28일까지)

동창회비 납부

Table listing dues for various states including Alaska, 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nd International.

Table listing dues for various states including Colorado,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daho,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nd International.

Table listing dues for various states including Colorado,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daho,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nd International.

Table listing dues for various states including Colorado,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daho,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nd International.

*품목에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인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거가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십시오. snu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1- 2013년 6월)

Form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donation. Includes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donation type. Includes a table for membership fees and a table for book orders. Includes fields for card number, security code, and expiration date.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의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HNK Tech,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준(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8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50,
Gardena CA 90248

강효석 회계사무소
강효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80
3600 Wilshire Blvd. #1104 LA. CA 90010

이강현 공인회계사
이강현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Jung Mo Park & Co
박정모(공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CA.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ANKO Consulting Co.
강신동 공인회계사
강신동(사대 73)
213-390-3801
386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리태일리/보여/무역

한남채인 (리태일리/상해)
하기원(공대 66)
(213) 381-3610
21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세계보석
김광철(총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권기원(총대 65)
(714)731-2776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In. CA 92782
grezone@yahoo.com

ALG USA
하상원(공대학원 90) 310-323-3331(O)
213-700-1500(F) 310-323-3338(Fax)
www.ALGUSA.NET. thomas@algsusa.net

변호사/법률사무소

김동산(법대 59)
무한법률고문그룹
Prepaid Attorney Service Corp
1.800.800.0246
303 Wilshire Blvd. Suite 2001, L.A. CA 90010
WWW.P-ASSIST.COM

신해원 변호사
신해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330
Los Angeles, CA 900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우주개발/기술

JAY H. CHUNG, Ph.D.
JAY H. CHUNG, Ph.D.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김재훈(공대 64)
3205 Wilshire Blvd. P.O. Box 6034
Cypress, California 90630, USA
E: jayh@jayh.com, jayh@jayh.com
Tel: 714-960-2042
http://www.jayh.com

LinkTV Media.
김원탁(공대 64)
818-768-5459
P.O.Box 1388 Sun Valley, CA 91332

교역/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34

서비스/개동계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성(영문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15) 473-4731
4132 Buford Hwy Doraville GA 30096

엔지니어링/ 법인/ 부동산/ 교회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우(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한미 교육 연구원

한미 교육 연구원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Center
장준환
1975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4-8270
Fax: (213) 384-8270
www.kaedu.com

Cake House
홍성국 323-780-0044
325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Team Spirit 부동산
(Investment & Development)
Jannie Chong Lee 이승희(간호 69)
714-305-0524
30 Corporate Park #207 Irvine CA 92606

LA CANADA KOREAN CHURCH
고원익(7) 818-790-7320
5058 Angeles Crest Hwy
LA. CANADA, CA 91011

재경/보안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정지선(상대 58)
2910 Telegraph Ave. #200, Oakland CA 94609

수의사/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원(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연계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동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운동/유통/관광/연계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9
9615 S. Norwalk Blvd., #8,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지급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관리 53)
213-369-9000
3700 Wilshire Blvd #1700 LA. CA 90010

SK Window
류 원(대학원 74)
213-700-4119
901 E. 31 St. LA. CA 90011
ryuwr2000@sk.com www.skwindow.net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644

의료/지급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지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Daniel D. Chung DDS, Inc.
정대연(지대 74)
(714)995-5000
888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지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dshp@yahoo.com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South Bay Cancer Center
니정자(간호 70)
310-978-46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노동 80)
909-862-3600 (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케미칼

LA Supply
전승욱(사대 50)
(562)-404-1502
13700 Rosecrans Ave. San Jose Springs
CA 90670



KJ Chow Chin
C&C Industries, Inc.
www.candc.com
11111 Wilshire Blvd,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4
Tel: (213) 696-1111
Fax: (213) 696-1111
www.candc.com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홍재우(공대 83)
(310) 626-6391
22920 Crestshaw Blvd. #R,
Torrance, CA 90505

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박근호(공대 65)
816-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식흥/음식점

강남취권
Kang Nam Restaurant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마포 주점용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009 S. Crest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9-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moundt CA 90723

복 가주

상업/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6년 전 설립된 한지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실성과 양호 추천, 저혼자 라이프
스타일,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skos1.com

수익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성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지급/전문외

박희래 한외편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비영리법인 해양 크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MD,VA 워싱턴DC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연대 84)
301-279-6969
414 Hunga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외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6

재산관리

IPM Family Wealth Management
이대영(법대 60)
(410) 777-6081 ex158
345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tallee@ipmfc.com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a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530
Annandale VA 22003

부동산/장계인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병원/지급

이준영 치과(지대 74)
(301) 220-2828 (301)3626-6692
6201 Greenbelt Rd Ste 10, College Park MD 20740
86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GA 조지아

리태일과/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L-IN 시카고

의료/내과/전문외/지급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8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 이준우 치과
이준우(지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Suite #301
Niles, IL 6071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전기주(상대 80)
(713) 443-4533
10350 Clay Rd., #250 Houston TX 77041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조혈)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공인약사

Wesley Y. Chung CPA
정일희(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에드워드 강, CPA.

강홍우(사대 60)
1212594-9034
5 Renaissance Square, Ste 31E White Plains,
NY 10601
edwardcmkang@yahoo.com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5
38 W 32nd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형(상대 64)
(212) 78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Sung N. Pak, CPA

박성남(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통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리태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연오사

연봉원 변호사
연봉원(통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조대영(통대 61)
(212) 779-7770 (914)782-0432
445 5th Ave., Suite 5E New York NY 10016
taicho@tai.com

부동산/장계업

Evergreen Realty
이재영(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크로스 부동산

이재영(법대 60) 201-944-4949(C)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hem Realty

김은희(간통대 71)
(718)225-4500, (917)686-3360
45-22 Little Neck PKWY#5 Little Neck
NY 11362, eunicekim RE@gmail.com

운송 / 유통 / 특강

American Int'l Line, Inc.
윤경희(농대 80)
(718) 995-705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67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촌 재교

방촌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사회사업 / 법인

Women In Need Center
유지혜의 집 여성 임시숙소
김동경(통대 82)
P.O.Box 540699 Flushing NY 11354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훈(사대 68)
702-394-2828 702-480-7115
520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1.com

OR 오레곤

Flono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83
P.O.7416 Beaver ton OR,97007

*** 열람 한민교회**

최근복(통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맹병원/서당
GREGORY K. JOO, D.V.M.
MICHELLE CAMPBELL, V.M.D.
JOHN CAMPBELL, V.M.D.
주거복(수의 68)
1000 Locust Walk, Philadelphia, PA 19111
1312 Columbia Blvd.
Philadelphia, PA 19111
Telephone: (215) 648-9222
Fax: (215) 648-9284
Email: oodm@montgomeryhospital.com

이츠미 일식당

최홍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건강 설계

Timothy Heah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84-942-0000
550 Township Line Rd. Ste. X0 Blue Bell PA 19022

TX 텍사스

산업

C & C Industries, Inc.
권기주(통대 60)
713-443-4593
10350 Clay Rd. #250 Houston TX 77094

WA 워싱턴 DC

제약/약방

Key Compounding Pharmacy
박희주(약대 83)
206-678-3900
530 S. 336th St. Federal Way WA 98003
hsajoo@keycompounding.com

“웃으며 삽시다”

소원

이제 알겠지?

어떤 부부가 별자가 적혀 있지 않은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봉투를 뜯어보니 정말 보고 싶어하던 연극표 두 장이 들어 있었다. 마침 결혼 기념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차라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들 중 누군가가 보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부부는 결혼 기념일날 의식도 하고 그 연극을 보고는 아주 기분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밤 늦게 침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보고는 깜짝 놀랐다. 도둑이 들어 집안이 온통 어질러져 있고 귀중품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부부는 주심 주심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연극 잘 봤지요?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겠지요? 바보들이야.”

한 청년이 해변을 걷고 있던 중 누군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파도 속에 뛰어들어 그를 살려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구해준 사람은 대신에서 당신! 유쾌한 것으로 알려진 대담할 후보였다. 겨우 살아난 남자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이 나라를 위해 아무런 일을 했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합니다 어르신.”
“아니야. 내가 질문하게 될 것인데 대담할 후보에게 부담과 싫증,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게.”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청년의 뜻밖의 소원이 그는 깜짝 놀랐다.
“이해할 수 없군, 자네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를 살려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여행기·특후담
기타=동창회보는 모든 동문들
의 글을 받아 게재하고 있으
니 언제나 글을 주시기 바
랍니다. 글의 주제와 내용은 제
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경
이화적이지도, 이념적으로 너
무 민감한 내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
는 것은 다소 규제를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도 너
무 자주된 내용을 역시 마한가
자. 분량은 특집이 아닌 경우
A4(Letter)용지 3매 이하로
작성 사진과 연하지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y Journey to America = 동
문들의 지난 날 과거를 그리
는 연재작을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김태환
(분리대 80) 동문에서 이어 권
준희(차용영양학과 87) 교수
의 '취직하지 않는 삶의 의
미'가 4회로 끝을 맺고 지난
해 10월호부터는 게재되지 못
했다. 이는 동문들께서 여러
가지 원한을 알게 보내오
시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
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
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해주시
기 바랍니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동창회보 열독 동문= 동창
회보를 애독해주시는 동문들 중
에서도 특히 열독해주시는 동문들
이 적어달라 말씀드립니다. 편라
별 페이지의 K동문들 비롯해서 뉴욕시
카고-워싱턴DC 등 온 도시에 계신
분들입니다. 대개 40-50년대 학번으
로 연령이 높은 이분들은 동창회
보가 빨간색 일정한 기간이 지나
도 배달되지 않으면 언제 나오
는가를 전화로 문의하시곤 한다. 때
로는 그 때까지 배주 권유를 받기
도 한다. "나이가 들어 바빠질 줄
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있는 상
태라 동창회보를 읽는 재미와 또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의 동정
소식은 것이 일상생활의 큰 나 중
하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모
교와 동문 사랑이 너무나 그윽한
편라인데 동창회보 발행이 갈수록
늦어져 여간 속수무련 게 아니다.
○...동창회보 뉴스 요청에 즈음=
동창회보는 각 지역 동창회보 신
소식을 전하는 동창회보 편집
국간은 세월 각 지역 동창회보
소식과 사정을 요청하고 있다.
각 지역 동창회보 행사 사업은
동문 동창회내 작은 모임이라도
좋은 모임이라면 모든 동문들이
공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지
모든 기사와 사진을 잘 보내주
는 동창회보 사정이 잘 하리만

대로 아주 비화적적인 동창회
모임도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동창회 소식을 보내오지 않는 곳
도 많다. 그런데도 지역 동창회
의 모임에 대해 감사의 사진을
올렸는데 돌아온 답신은 마치 조
동하는 것 같은 말투라 그다지
계재한다. "하하하. 편집 고마
수지만 저희 스누브 회원들 보
기에 신문수씩 그런 거 하라고
생각하고 귀찮은 일일 뿐입니다.
모두들 편집을 시고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신문수씩 없
는 회원 보십시오. 신문수씩 없
는 우리대로 즐겁고 행복하
겠습니다. Please just leave us
alone. 좋은 여름 되십시오." 따
리한 다른 동창회보에 부탁한 것
같은 느낌이다.***<편집주간>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자기회장	김상찬(윤리 66) 714-396-0493 skkim@rockwellcollins.com
북가주	회장 자기회장	이장우(윤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박희재(간호 73) 831-818-1959 acunee@earthlink.net
뉴욕	회장 자기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88 changsookim@earthlink.net 박상일(음대 69) 917-327-2989 sangparkny@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자기회장	정선주(간호 68) 781-674-2498 youngpark@yahoo.com 장수인(음대 76) 978-284-2988 sooinh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부회장	최 연(공대 70) 817-919-3057 yunchoy@sbcglobal.net 오기영(공대 73)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자기회장	표한승(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미네소타	회장 자기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8-0040 woodlaw@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자기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dunison@gmail.com 최승훈(자연 87) 858-259-5273 hyungsung_choi@knobbe.com
시카고	회장 자기회장	한의일(공대 62) 312-213-8557 eyuilhahn@gmail.com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애리조나	회장 자기회장	오윤환(문리대) yho@attheon.com
알래스카	회장 자기회장	류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ilyoon@hotmail.com 백석연(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자기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오하이오	회장 자기회장	송원길(외대 58) 614-378-2918 wnsong3140@aol.com
워싱턴DC	회장 자기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자기회장	김우용(음대 64) 253-228-4396 czno2@ymail.com
유타	회장 자기회장	배유현(공대 73) 801-474-1945 you.baee@yah.edu
조지아	회장 자기회장	김동현(공대 68) 215-828-9011 dhkimkim@hot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자기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1s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수석부회장	민홍식(수학대 60) 267-577-0502 hungmin43@gmail.com 김정현(공대 68)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자기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ipark@daum.net
캐롤라이나	회장 자기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928-9686 sinho_jung@duke.edu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t0109@nc.rr.com
하와이	회장 자기회장	김윤수(수학 75) 808-394-2369 ykim@hawaii.edu
하들랜드	회장 부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yahooc.com 이상진(상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anjunsad@gmail.com
휴스턴	회장 자기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부회장	김홍자(음대 62) 778-355-6659 honjakim@shaw.ca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명희@icloud.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부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esd@hotmail.com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학수(문)-강수석(외)-이병준(상)-오민석(법)-
이희택(공)-김우중(자)-이정택(과)-이규(인)

제11대 회장 : 김은중(상)

간기 회장 : 오인환(문)
국가유형회 부회장 : 노영호(공)

김영환 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박복자(음)
재무국장 : 강석진(공)
사업국장 : 이경희(공)
선외국장 : 이상대(농)
감 사 : 김재영(농)-박원길(농)
IT개발위원장 : 이홍도(공)
기타개발위원장 : 김영연(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 김은중(상)
상임고문 : 박재훈(농)-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만수(상)
편집주간 : 이기중
편집위원 : 조홍준(문)-박양동(문)-김재영(농)-
나희선(문)-이홍도(공)-김지영(사)-
김영수(문)-이정택(문)-김홍희(인)

논설위원

김일환(CH)-김기태(LA)-조동준(LA)-최용환(LA)-
박순(WA,DC)-육길영(CH)-이정광(LA)-홍복해(PA)-
윤상래(NE)-김정수(NY)-임승택(SF)-장석경(CH)-
이석구(NY)-정요리(LA)

회칙위원회

위원장 = 서문인(공 - PA)
원 인 = 한재연(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용남(법 - NY) - 함근선(법 - 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은 이기중 편집주간
snuusaalk@gmail.com
·인쇄= China Times Printing, INC.
445 Hedra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22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The 22nd Pyung-Eui-Won Hoe for the SNUAA-USA, June 21~23, 2013
The Westin Hotel, Tysons Corner, VA 22043

*이제 일정 중 붉은 색 글자의 내용은 비평의원, 가족, 워싱턴 동문들도 참가할 수 있는 행사임

Time/ Date	Thursday June 20	Friday June 21	Saturday June 22	Sunday June 23
07:00-08:00		Breakfast	Breakfast/Registration	Breakfast
08:00-09:00	Arrival	Arrival and Registration	Pyung-Eui-Won Hoe 평의원 회의	Departure & Free Time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01:00	Lunch	Lunch	Lunch	Lunch and Photo Session
01:00-02:00	Arrival	arrival and Registration	Pyung-Eui-Won Hoe 평의원 회의	Golf Game (PB Dye GC) 12시 입장
02:00-03:00				
03:00-04:00				
04:00-05:00				
05:00-06:00	Paik Nam June Exhibition	Registration and Social Mix		
06:00-07:00		Back by Bus		
07:00-08:00	Dinner	Pyung-Eui-Won Hoe Eve 우대목	Main Banquet(오교 오연천 총장 축하 동영상, 반기론 UN사무총장 축 사 동영상, Arb. Thomas Hubbard Keynote Speech)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6시.	Dinner and Winners' Presentation
08:00-09:00				
19:00-10:00				
10:30-11:00				
11:00-12:00			Chapter Presidents Meeting	

연락처 : 오인환 제12대 미주 동창회장 301-775-3919 ioh0858@comcast.net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뉴잉글랜드지구 동창회

미주총동창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정선주 (간호 58)
부회장: 장수인 (총 78) 추우: 도상주 (공 84)
재무: 김재성 (공 87) 설의: 이상은 (수 87) 기획: 이재형 (공 91)
관악로림이사회: 김재호 (상 56), 박홍승 (미 56), 오세경 (약 61)
문학총신이사회: 고박은 (미 53) 융성태 (수 62) 윤선홍 (지 64)
이사: 그외석 김경석 김병국 김경희 장흥희 김윤호 김선혁
김용구 김성민 김은환 김민수 김성선 박명철 성낙우
신상철 윤성래 윤석훈 윤용표 윤운상 윤희경 이강원
이강필 이희인 이희규 장수인 장용복 정선주 정인석
정영규 정영문 한병희
역대 회장: 박연민(제1대) 강경식(제2대) 이재신(제3대) 정종택(제4대)
윤상희(제5대-제7대) 유희경(제8대) 김갑국(제9대)

미국 혁명의 발상지이며 미국 독립의 원동력이 된 Massachusetts
가 중심인 뉴잉글랜드지구 동창회는 1997년부터 자리하고 있으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며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민사회
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최고의 지성을 배출하는 유명 대학과 더불어 모범이 되는 동창회를
유지하기위하여 동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곳 입니다.



Web: sites.google.com/site/snuane
Email: snuane@gmail.com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sof.com | 888-833-7460 | 888-833-7474 | facebook.com/jaysof | twitter.com/jaysof | youtube.com/user/jaysof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의 제22차 미주 평의원 회의 워싱턴 DC. 개최를 축하합니다!”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Tel. (703)642-2900
4330 Evergreen Ln. Ste.H.
Annandale, VA 23936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리인: 김재정(82), 문리애 | www.duo.co.kr



좋은사랑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 인정하는 프라이빗 브랜드 : 규모와 인력,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배려형 커뮤니케이션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습니다.
- 전국 회원감사 : 전국 회원과의 만남을 위한 공무, 2인 1회원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습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9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 213-383-0077 ☎ 201-242-0505



bbcncbank.com

“민수봉(상대 55) 행장님의
BBCN은행 행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rporate Headquarters

3731 Wilshire Blv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10
T(213)401-2300 F (213)368-8598
soobong.min @ BBCNbank.com



HOPE CONCERT

Maestro Nanse Gum

- Benefit concert to support Music Peace Foundation College Fund -



Friday, August 23, 2013, 8:00pm
The Music Center's Walt Disney Concert Hall



Sarah Yoon Kim (김예은)
Music Director & Conductor



Helen Park
soprano



Eun Ok Kim
soprano



Sungwan Cho
organist



DOSAN PHILHARMONIC ORCHESTRA • EWHA CHORUS(California & Seoul), UNITED CHOIR

sponsored by

MUSIC PEACE FOUNDATION, INC.